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5)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0년 8월 11일) 쇠고기 육질 등급별 격차 비율, 프라임급이 과거 최고를 갱신

2019년도의 평가 실적

미국 농무부 농업 마케팅국(USDA/AMS)이 공표한 ‘National Summary of Meats Graded’에 따르면, 2019년도(2018년 10월~2019년 9월)의 육질 등급별 쇠고기 등급 실적²⁾(중량 기준)은 육질 등급을 받은 쇠고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프라임급(최상위 등급)의 비율이 8.8%(전년도 대비 1.2포인트 증가)로 과거 최고를 경신했다(표 1). 비중이 가장 큰 초이스급은 73.4%(동 0.3%포인트 감소), 다음으로 많은 셀렉트급은 17.5%(동 1.0포인트 감소)로 나타났다. 또 육질등급을 받은 쇠고기 전체 중 상위 3등급(프라임급~셀렉트급)으로 분류된 것이 99.7%, 수율 등급의 등급을 받지 않았던 것이 71.9%였다. 또한 과거 5년간은 프라임급이 증가, 초이스급이 대체로 보합, 셀렉트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4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 2) 미국에서는 육질 등급(프라임~캐너의 8단계)과 수율 등급(Y1~Y5의 5단계)의 2종류의 등급이 존재하며, USDA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육질 등급은 성숙도(연령)과 지방 교잡의 정도로 평가되고, 프라임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다. 수율 등급은 생체 중량에 대한 살코기 제품 수율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Y1을 최상위 등급(52.3%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米国における牛肉生産の産業構造～消費・輸出入の動向まで～(畜産の情報2016年11月号)」(<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6/nov/wrepo02.htm>)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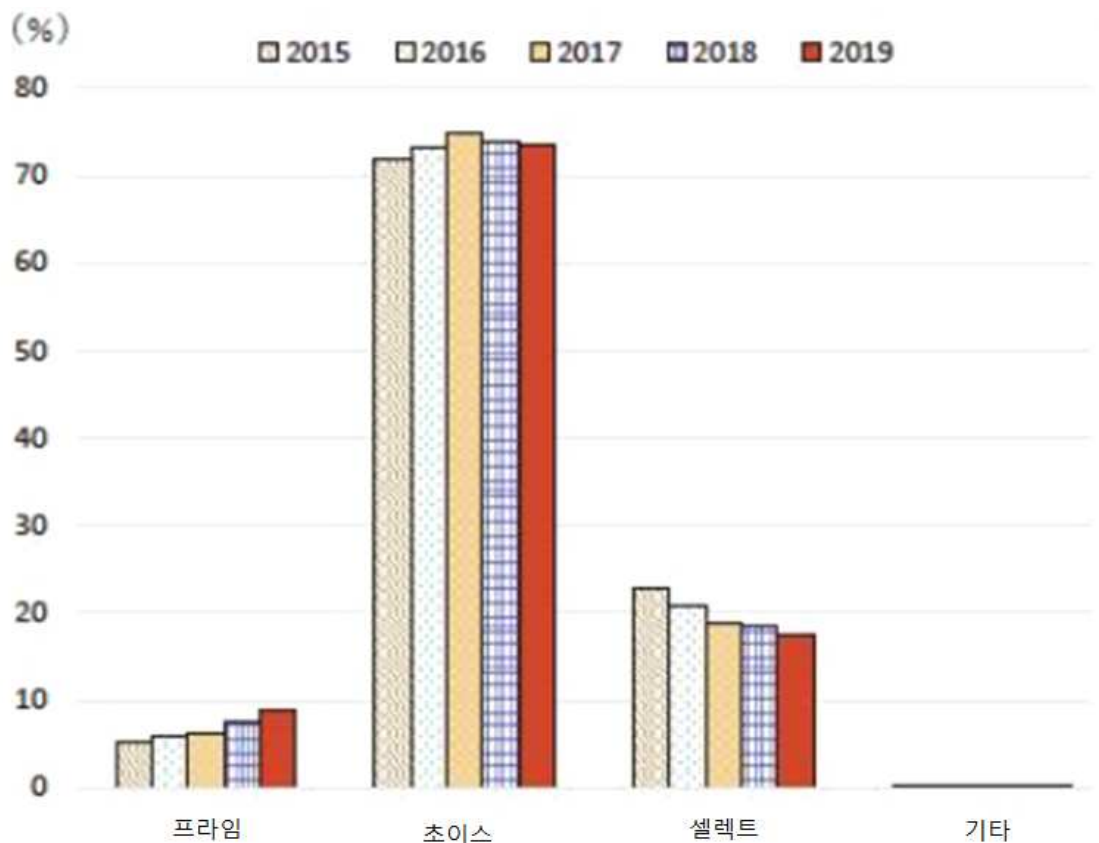
〈표 1〉 미국의 육질·수율 등급별 쇠고기 등급 비율(2019년도)

육질등급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기타	계	
8.8%	73.4%	17.5%	0.3%	100.0%	
수율 등급					
Y1	Y2	Y3	Y4	Y5	계
5.3%	33.9%	47.8%	11.2%	1.9%	100.0%

주 1: 2019년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중량베이스
 2: 사사오입으로 내역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육질등급의 기타란 스탠다드, 캐너의 하위 5등급을 말함.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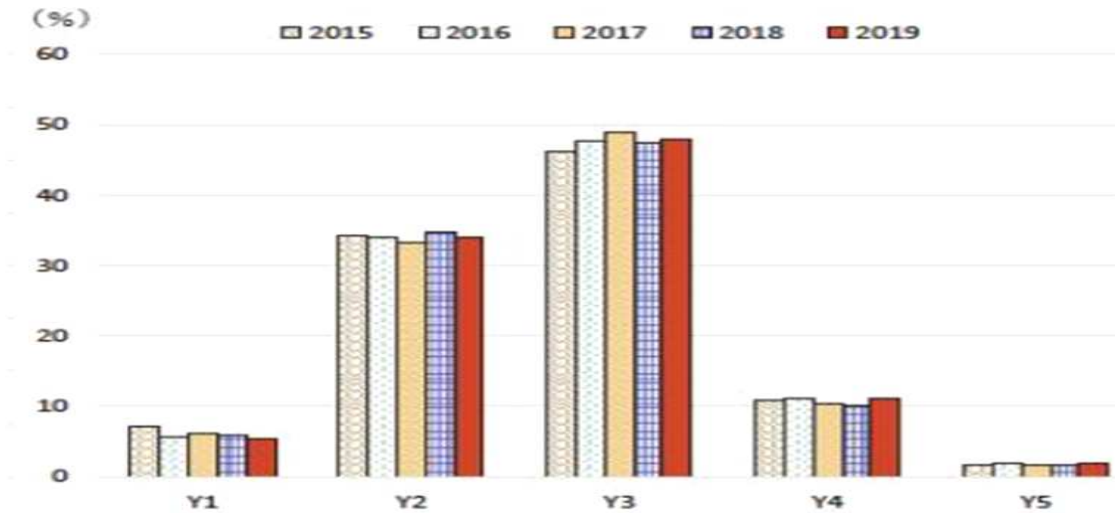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육질등급별 등급비율 추이



주: 각 년도는 전년 10월부터当年 9월
 자료: USDA

수율 등급별 쇠고기 등급 실적은 수율 등급의 등급을 받은 쇠고기 전체에 차지하는 Y1(최상위 등급)의 비율이 5.3%(동 0.5%포인트 감소), Y2가 33.9%(동 0.9%포인트 감소), 비중이 가장 많은 Y3가 47.8%(동 0.3%포인트 증가), Y4가 11.2%(동 1.1%포인트 증가), Y5가 1.9%(동 0.2%포인트 증가)로, 상위 2등급(Y1, Y2)이 감소, 하위 3등급(Y3, Y4, Y5)이 증가했다. 또한 과거 5년간은 모든 등급도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미국의 수율등급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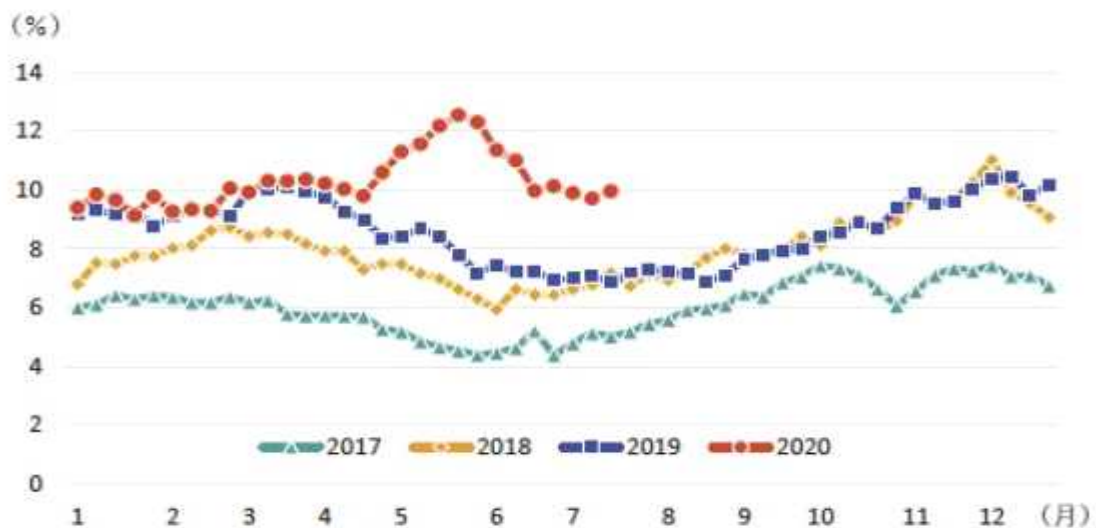


2019년도의 평가 실시율을 보면, 미성숙 비육우(거세우·미경산우)의 95.6%, 경산우 0.9%가 육질 등급, 수율 등급의 모두, 혹은 하나의 등급을 받았다. 또 미성숙 비육우의 육질 등급, 수율 등급 평가 실시율은 각각 95.1%, 27.2%로 나타났다.

코로나 영향의 등급 동향

USDA/AMS가 매주 발표하는 ‘National Steer&Heifer Estimated Grading Percent Report’에 따르면, 프라임급의 주별 비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미국 내 도축장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2020년 4월 하순 이후 고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5월 중순(5월 17일~23일) 전성기에는 셀렉트급 비율(12.28%)을 웃도는 12.55%를 기록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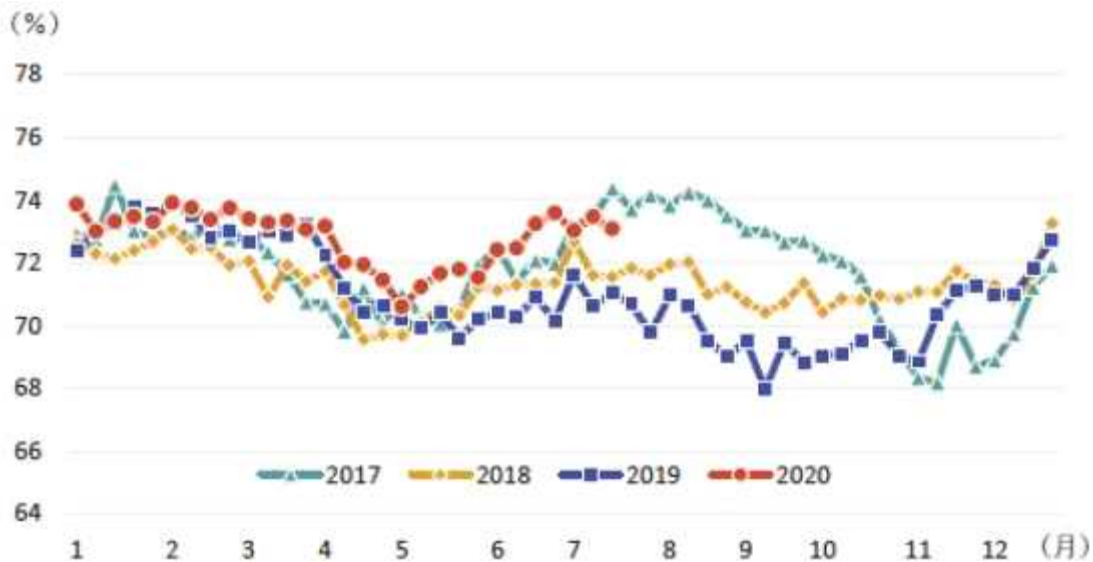
〈그림 3〉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프라임급의 비율



자료: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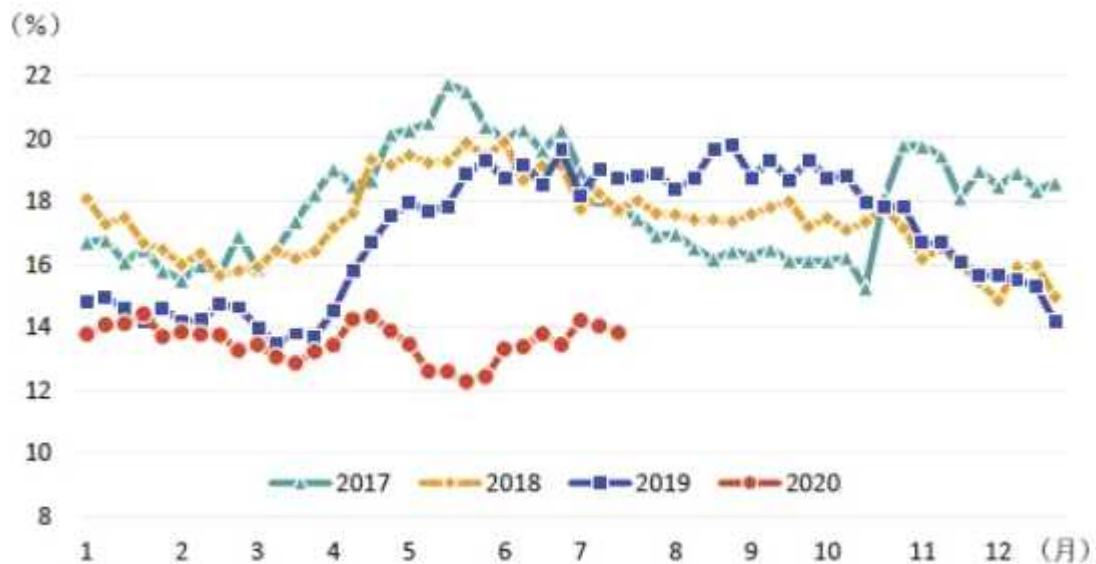
한 요인으로서, 도축장의 가동률 저하로 곡물비육장에서 출하 지연에 따른 비육기간 장기화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육질등급은 지방교잡이 많으면 상위가 되기 때문에 비육기간이 긴 편이 상위등급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또 프라임급에 더해 초이스급 비율도 전년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으며, 셀렉트급은 그만큼 크게 줄어 4월 하순 이후 전년보다 크게 밀돌아 추이하고 있다(그림 4, 그림 5).

〈그림 4〉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초이스급 비율



자료: USDA

〈그림 5〉 쇠고기 등급판정 실적에서 점하는 셀렉트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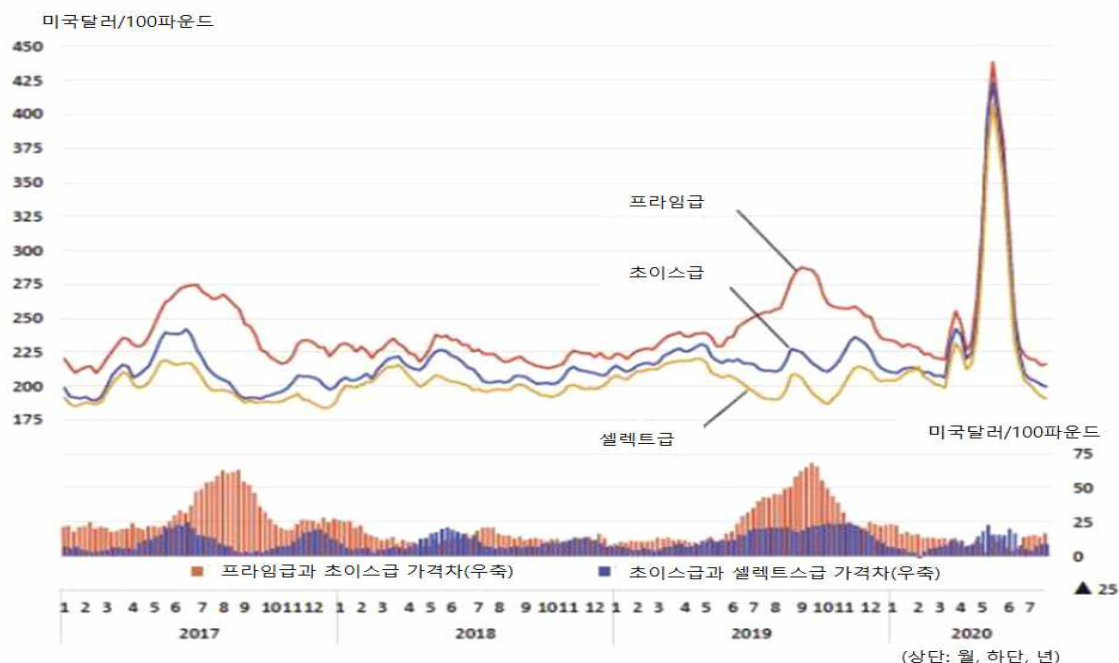


자료: USDA

최근의 육질 등급별 쇠고기 도매가격 추이

USDA/AMS가 매주 발표하는 ‘Comprehensive Boxed Beef Cutout’에 따르면, 육질 등급 상위 3등급(프라임급~셀렉트급)의 쇠고기 도매가격은 등급 간 가격차가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등급별 도매가격을 2019년 연간 평균으로 보면, 프라임급은 100파운드당 247.1미국 달러(286,984원), 초이스급은 동 219.7미국 달러(255,162원), 셀렉트급은 동 205.4달러(238,089원)으로 등급 간 가격차에서는 프라임급과 초이스급의 가격 차이는 동 27.4달러(31,823원), 초이스급과 셀렉트급의 가격 차이는 동 14.3달러(16,680원)였다(그림 6).

〈그림 6〉 미국의 육질등급별 쇠고기 도매가격 및 그 가격차 추이



주: 컷아웃별류란 각 부분육의 도매가격을 1두분 지육으로 재구성한 도매지표가격

자료: USDA

또한 등급 간 가격차는 비육기간 등 수익성에 관한 경영 판단을 위한 지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가격 차이가 크면 장기비육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쇠고기 도매 가격을 보면, COVID-19의 영향으로 도축장 가동률이 떨어져 2020년 5월 중순을 정점으로 급등하고, 그 뒤 가동을 회복에 따라 급락하였다³⁾. 폭락 이후에는 곡물비육장으로 출하 대기를 하고 있는 소가 많은 데다, 외식 수요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전년을 밀돌아 추이하고 있다.

3) COVID-19가 미국의 쇠고기 도매가격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米国農務省, 牛肉加工処理施設火災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牛肉市場への影響調査結果を公表(海外情報2020年8月5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57.html), 「牛肉市場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異例の混乱から回復(畜産の情報2020年8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63.html)를 참조할 것.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2. (2020년 8월 21일) 미국 농무부,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 지원 프로그램 대상 농작물 추가

올해 5월 19일 미국 농무부(USDA)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 주인들 등을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식량지원 프로그램(CFAP)의 세부 내용을 공표했다. 그 뒤 USDA는 6월 22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하고, 개인과 단체로부터 접수된 1,740건의 의견과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7월 9일 및 8월 11일 CFAP 대상 농작물 추가와 납부율 조정을 공표했다.

5월 19일에 공표된 CFAP의 상세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CFAP의 직접지불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 안전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과 상품신용공사(CCC) 현장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이다.

단위의 환산은 1미국 달러=1,161.41원(2020년 10월 6일 기준 환율), 1파운드=0.453592킬로그램을 사용했다.

가축

지불 대상으로 축우 가운데 비육우 체중이 1400파운드 이상에서 1,200파운드 초과로 확대됐고,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에 2세 이상의 모든 양이 추가되었다(표 2: 변경 부분은 주황색).

〈표 2〉 대상 가축과 단위당 지불액

가축	대상	CARES Act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CCC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지불단위
		미국달러	원화환산	미국달러	원화 환산	
소	비육우(600파운드(272kg) 미만)	102	118,464	33	38,327	두
	비육우(600파운드(272kg) 이상)	139	161,436	33	38,327	
	도축우: 비육우 (1,200파운드(544kg) 초과)	214	248,542	33	38,327	
	도축우: 성우(도태한 번식우)	92	106,850	33	38,327	
	기타 소(번식우, 후보우,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	102	118,464	33	38,327	
돼지	자돈(120파운드(54kg) 미만)	28	32,519	17	19,744	
	성돈(120파운드(54kg) 이상)	18	20,905	17	19,744	
양	2세 미만 모든 양	33	38,327	7	8,130	
	2세 이상 모든 양	24	27,874	7	8,130	

과일이나 야채 등

과일이나 야채 등에 대해서는 크게 대상 작물이 추가되면서 ,더욱 일부 대상 작물에 대해서는 지불액도 조정이 이루어졌다(표 생략). CCC에 근거한 단위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초 대상 작물의 중량에 대해 지불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 작물의 면적에 따른 지불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계란

지급 대상의 농산물에 액란 및 냉동액란이 추가됐다. 지불은 2020년 1월부터 3월 제1분기의 생산량에 대해서, CARES Act에 의거한 지급액과 CCC에 의거한 지급액을 각각 곱한 금액의 합계가 된다(표 3). 또한 껍질이 있는 계란 및 건조한 계란은 COVID-19의 영향으로 전미에서 5% 이상의 가격 하락이 확인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았다.

〈표 3〉 계란의 단위당 지불액

상품	CARES Act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CCC에 기초한 단위당 지불액		지불단위
	미국달러	원화환산	미국달러	원화 환산	
액란	0.05	70	0.02	23	파운드
비육우(600파운드(272kg) 이상)	0.06	58	0.02	23	

기타

상기 외에 관상용 식물과 절화, 수산물도 지불 대상으로 추가됐다.

신청과 지불

이번에 많은 농작물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한편 복숭아와 루바브(대황 속의 채소의 일종)에 관해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판매됐지만, 5% 이상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생긴 농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 항목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2020년 4월 15일까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의 판로를 잃는 중대한 품질 열화가 생긴 농산물인 복숭아, 루바브, 아스파라거스 및 버섯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지급액이 감소하였다.

당초에는 자금을 마련하느라 신청이 승인된 생산자는 우선 지급액 80%를 받았고, 그 후 농장 서비스국(FSA)이 나머지 20%를 생산자에 자동적으로 지불하는 구조였다. 향후에는 CFAP를 신청하는 생산자는 신청이 승인된 단계에서 지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 신청 마감일이 9월 11일 연장됐다.

8월 11일 공표에 맞추어 퍼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가와 목장주가 COVID-19 대유행을 극복하고 미국과 세계에 충분한 식량과 섬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CFAP에서 160억 달러의 직접지불을 승인하고, 오늘 우리는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농작물을 더 CFAP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CFAP는 생산자가 COVID-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USDA가 마련한 수많은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USDA는 대출의 지불 유예와 작물 보험과 신청 기한에 유연성을 가하는 등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参考：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米国）】

- 米国農務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ている生産者への支援策の詳細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5月26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09.html)
- 米国農務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農業支援策を発表(海外情報(令和2年4月28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5.html)
- 食肉団体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を受ける業界の窮状を訴える(海外情報(令和2年4月17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79.html)

3. (2020년 8월 28일) 북미 식육 협회가 노동 안전 위생청과 제휴 협정을 체결

북미식육협회(NAMI)⁴⁾와 미국노동성 노동안전위생청(DOL/OSHA)은 7월 29일 식육·식조처리장이나 정육가공시설(이하 ‘처리장’)등의 종업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익한 정보와 지침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본 협정으로 NAMI및 OSHA는 NAMI회원 노동 현장의 안전 및 위생 대책의 전문가, 처리장 종업원, 일반 시민에 대해서,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자의 책무를 이해하고, COVID-19에게 감염 리스크를 저감시켰고, 종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지침,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본 협정에서 참가자가 협력하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처리장에서의 COVID-19의 감염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과제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인 원격 회의 및 온라인 통신 수단 등을 통해서, OSHA직원과 업계의 안전 및 위생 대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한다.
- COVID-19의 전파 위험에 대한 이해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최선 조치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고, 이들 정보를 업계 고용자와 노동자에게 인쇄물, 전자 매체 언론과 지원 수단, OSHA및 NAMI의 웹 사이트 등을 매개로 제공한다.
- 공동 포럼, 좌담회, 이해 관계자와 회의, 웨비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처리장에서의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OSHA가 제공하는 지침 및 NAMI가 제공하는 뛰어난 대처나 효과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지원을 실시한다.

4) 육류, 가금육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정육가공 업체와 가공처리용 기기 제조 기업 등 축산물 생산에 관련 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NAMI 회원은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가공처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자재와 뛰어난 대처에 관한 OSHA 및 NAMI가 주최하는 회의 지방에서 열리는 회의 및 기타 행사에 참여하고 전시 및 강연을 한다.
- NAMI의 회원 및 기타 업계 관계자에게 OSHA의 지방 사무소와 관계 구축을 높이고 OSHA가 승인할 주별 노동 안전 계획을 작성하며, OSHA의 현장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직장의 안전과 위생 대책을 개선하여 처리장에서의 COVID-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 양측 대표자로 구성되는 실행 팀은 1년에 1~2회 회합을 열어 참여자의 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연계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협정 체결로 NAMI의 줄리 안나 풋츠 회장 겸 CEO는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OSHA와 협력하고 COVID-19의 대유행 간 및 그 뒤에서 처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처를 함께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종업원은 미국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말했다.

또 OSHA의 로렌 스웨트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식량공급 안전성은 건강한 종업원에 의한 조업이 계속되는 처리장에 의존하고 있다. OSHA와 NAMI는 협정을 맺는 것으로 중요한 축산업계의 고용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올해 4월 28일 COVID-19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적용되는 사이에서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에게 단백질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은 조업을 계속할 것을 명한 대통령령이 발령됐다. 이로써 처리장은 종업원의 적절한 안전 위생 대책을 철저한 위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미국의 COVID-19종식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본 협정에 의한 향후의 성과가 주목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参考：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情報（米国）】

- 트럼프大統領、食肉・食鳥処理場の操業継続を命じる大統領令を发出（米国）（海外情報（令和2年5月7日発））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1.html
- 食肉・食鳥処理場の処理能力、前年同時期の95%超まで回復（米国）（海外情報（令和2年6月12日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27.html

4. (2020년 9월 22일) 美 식당 체인 시즐러,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신청

미국 식당 체인 시즐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21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었던 시즐러는 외식업 경쟁 격화로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여 왔다.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시즐러(Sizzl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21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즐러가 이날 캘리포니아 주 북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시즐러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14개 직영 식당의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며 가맹점 90여 곳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퍼킨스 시즐러 사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데다 매장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식당을 임시 폐쇄한 영향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즐러는 지난 1996년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1958년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시즐러(Sizzler)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후 외식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진한 경영 실적을 보여 왔다. 한국에도 진출했다가 2000년대 초반 철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또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인 처키치즈(Chuck E. Cheese)의 모회사 CEC엔터테인먼트(CEC Entertainment)도 지난 6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출처) 서울경제, ‘美 식당 체인 시즐러, 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신청’, 2020년 9월 22일자(<https://www.sedaily.com/NewsView/1Z7YDXN7FS>)

5. (2020년 9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0억 달러의 농장 원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7일 저녁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농가들에게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원 방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로 낙농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위스콘신 주는 대선 레이스의 격전지이다.

그러나 새로운 원조를 통해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어떤 자금원이 이용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 130억 달러의 농장 원조 발표’, 농업관측 「국제곡물」 2020년 10월호
- 원문출처: 로이터(Reuters), 2020.9.17.

6. (2020년 9월 28일) 농무부 경제조사국, 2020년 농가소득 전망 발표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2020년 농가소득 전망을 발표하였다. 주요 전망으로는 △농가 현금 수입이 감소, △정부 직불금의 증가, △총생산비의 감소, △농가 자산의 증가 등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농가 지원금액은 2020년에 증가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소규모 경영체를 돕기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시장촉진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 농업위험보장(Agriculture Risk Coverage) 등의 예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자금은 2019년에 비하여 40억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8 (2020.9.21.)

- 원문 출처: 미국 농무부, “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0 Farm Income Forecast” (2020.9.2.)

7. (2020년 10월 5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미국 정부의 대응

코로나19 발생 초기(2020년 2월~4월) 미국의 실업률은 3.5%에서 14.7%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4일까지 약 5천만 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

재택 명령(Stay-at-home order) 이후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의 실업률은 급상승했지만, 농업 분야는 같은 기간 실업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농업 분야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분야”로 지정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며 계속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농업부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식품 공급 사슬의 각 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식품 공급 사슬을 세 부문(식품 서비스·식품 가공·식품 생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서비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업률이 5.7%에서 35.4%로 상승하였다. 요리사, 바텐더 등 약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식품 가공) 같은 기간 실업률이 5.7%에서 10.1%로 상승하였다. 식품 가공 부문도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힘든 육류 가공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설의 폐쇄로 실업률이 증가(예: Smithfield의 South Dakota 시설 폐쇄)하여 육류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24.5%p 감소하였다.

(식품 생산) 같은 기간 실업률이 11.0%에서 9.6%로 1.4%p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7%p 감소) 덜 감소했지만 타 부문과 비교해 영향이 미미한데 이는 식품 생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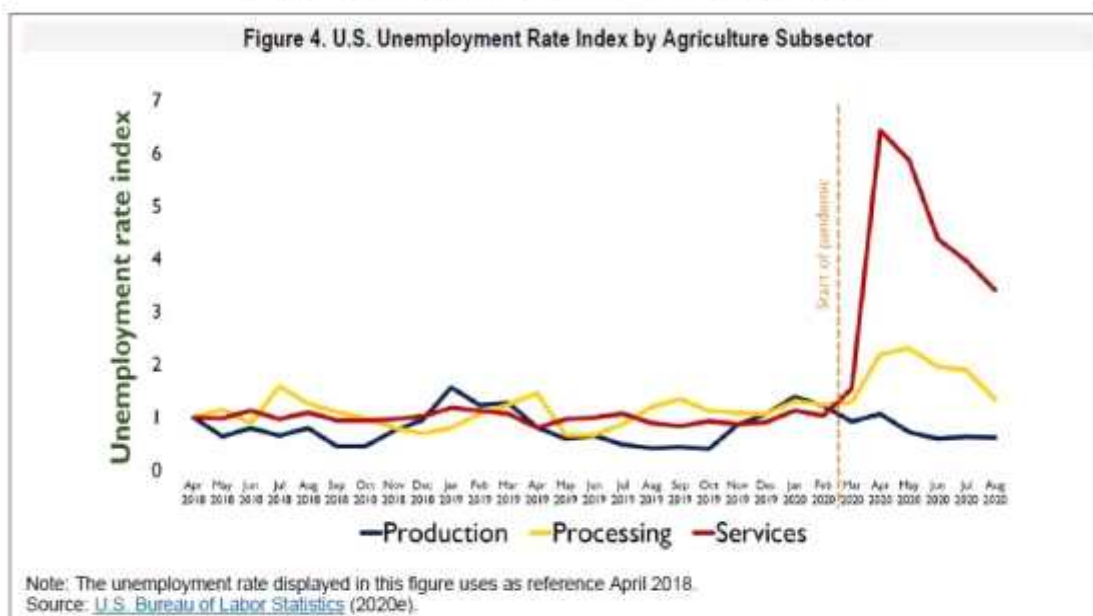
문이 “필수 분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식품 생산 부문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힘든 노동 집약적 작물(과일 및 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사재기(panic buying)의 효과는 미미했는데, 이는 사재기로 인한 수요증가가 저장성이 높은 상품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비농업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휴양 및 숙박, 의료, 교육, 그리고 전문직 분야가 큰 영향을 받았다. 의료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2.2%에서 10.4%로 상승(27,000명 임시 해고)하였다. 교육 분야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4.6%에서 12.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으로 인한 결과이다.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전문 엔지니어 등)의 경우 같은 기간 실업률이 4.4%에서 9.0%로 상승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계약직 군에서 두드러진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인종 간에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히스패닉 노동자 그룹에서의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진다(17.4%p 상승). 이는 히스패닉 노동자 고용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휴양, 숙박, 외식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 2조 달러 규모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를 마련하여 기업, 소규모 사업장, 가게, 실업 보험 급여 등에 집중적으로 지급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총 3억 4,900만 달러 규모) 지원금의 60%를 직원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

Ⅰ 식품 공간 시설의 세 부문에서의 실업률 변동



농업 분야의 경우 160억 달러가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30억 달러는 잉여농산물을 구매하여 푸드뱅크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가게부문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은 성인 가구원 1인당 \$1,200, 17세 미만 가구원 1인당 \$500을 지급한다. 연

방 전염병 실업 보상 프로그램(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 FPUC)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매주 600달러를 최대 13주간 지급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Choice Magazine, “COVID-19 and the Agricultural Industry: Labor, Supply Chain, and Consumer Behavior” (2020.9.16.), (<https://www.choicesmagazine.org/>)

8. (2020년 10월 6일) 美 유제품시장, 코로나 충격 딛고 회복세 보여, 3월 대비 소매 수요 10% 이상 증가...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유제품 수출도 한 몫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제품 국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유제품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낙농식품협회(IDFA) 회장 마이클 다이크스는 최근 한 농업관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최근 유제품 소매 수요가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했던 3, 4월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음식점과 학교에서 유제품 수요가 붕괴되면서 낙농가들이 우유를 쏟아 부은 기억이 생생한데, 최근 시장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치즈 가격도 코로나 유행 당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 정상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 고 말했다.

그는 유제품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으로 16%, 금액으로는 14% 증가한 유제품 수출을 꼽았다.

그는 “올해 들어 특히 동남아시아로의 전지분유 수출과 중국으로의 유청 수출이 크게 늘었다” 고 하고, 작년과 비교해 물량으로는 164천 톤, 금액으로는 496백만 달러(6천억 원)이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유청 수출 증가는 올해 14천 개의 돼지농장이 새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 美 유제품시장, 코로나 충격 딛고 회복세 보여’ ,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6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0월 2일

9. (2020년 10월 8일)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유제품 소비 빠른 증가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美 낙농업계, 식물성 식품의 유제품 표기 제한 촉구

미국 낙농업계가 식품 라벨링 업무를 관장하는 FDA에 식물성 식품의 우유 또는

유제품 용어의 제한적 사용 제도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낙농가연합(NMPF)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신을 FDA측에 전달하고, 자사 웹사이트에도 게재했다 NMPF는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FDA가 코로나 사태로 지연됐던 현안업무를 재개한 만큼 유제품에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라벨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NMPF는 지난 몇 년간 FDA측에 식물성 식품이 우유/치즈/버터/요거트 라는 용어와 모조(imitation)/대안(alternative)/ 대체(substitute)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속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식물성 식품 연합(PBFA)은 현재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는 데도 모조 등의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식물성 유제품 업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우유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식물성 유제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낙농업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유제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물성 식품 업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식물성 유제품 시장이 연 평균 10%(금액 기준)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낙농업계, 식물성 식품의 유제품 표기 제한 촉구’,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8일자

- 원문출처: thefecnepost.com, 10월 6일

10. (2020년 10월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분기 미국 경제는 2008년 경제 위기 후, 최저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최근 100년 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행태가 변화했으며, 팬데믹이 계속되는 한 변화된 소비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소비행태 변화를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 관찰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팬데믹 선언과 재택 명령으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 식료품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50%p 급증하였으며, 3월 이후에도 연초 대비 7.5%p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사재기를 통한 식료품 비축의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팬데믹 기간에도 식품 산업 분야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식료품 소비 증가는 재택 명령이 시행된 주(state)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재택 명령으로 인한 외식감소의 결과로 보인다.

여행 및 여가 상품의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 전자제품, 주택과 같은 고가 상품(Big-ticket items)의 소비 역시 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고소득 계층과 40대 미만 소비자 계층에서 두드러진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냄으로 인해 밀가루와 같은 식품 재료와 청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재기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소비행태 관찰 후 식료품 품귀 현상을 우려한 비축 활동으로 보이며, 이는 감정적인 동기(Emotion driven)가 지배적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와 관련한 변화, 예를 들어, 상점 운영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신용카드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중기] 경제 재개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0년 5월부터 일부 주(state)에서 경제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감염 급증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GDP는 6~60%p, 소비자 실구매는 4.7%p 감소가 예상됨. 실업률은 약 3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대공황기 최고 수준이었던 25%를 상회한다.

일자리 불안정은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불안정은 고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젊은 계층의 경우 향후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소득 중년 가구의 경우 향후 소비 변화에 대한 응답을 꺼렸다.

사재기 현상은 둔화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판단(Ration driven)의 결과로 보인다.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 외에 지역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 여부보다 높은 신선도와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 더 많은 식료품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구매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소비행태의 뉴노멀(New Normal)은 다음과 같다. 식료품의 온라인 구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예를 들어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ietrich 외(2020)가 수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무위험(Risk-free)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Fork)의 공급 사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를 보였다. 이는 식품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용이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

식료품 유통 업체들의 온라인 구매 채널 제공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재고 관리, 배송, 매장 픽업의 자동화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함에 따라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편의 식품(HMR 혹은 ready to eat meals)과 식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과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식료품의 가치 사슬의 발달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40 (2020.10.12.)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Choice Magazine, “The Path Forward: U.S. Consumers and Food Retail Responses to COVID-19” (2020.9.16.), (<https://www.choicesmagazine.org/>)

11. (2020년 10월 19일) CB insight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및 주요 기술을 선정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및 주요 기술을 선정하였다. CB insight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 24가지 주요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교육, 금융 및 제조 산업에 이르기까지 격리(Quarantine)는 기업 운영 거의 모든 측면의 재구성 필수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교육, 병원 방문, 운동 등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사람들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배우고, 돈을 모으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를 경험하게 된다. 이 기간 디지털 공간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감안하면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술 변화는 비접촉 결제와 산업 자동화와 같은 기술 트렌드의 가속화 형태로 올 것이며, 가상현실, 3D 프린팅, 원격의료와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진로를 바꿀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40 (2020.10.12.)

- ** 원문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코로나19 이후 번창할 산업 및 주요 24개 기술” (2020.9.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1]에서 재인용

12. (2020년 10월 21일) 美 캘리포니아주, 지역 유제품으로 여유있는 아침식사 광고 -11월 한 달간 TV에 방송...코로나 상황 감안해 6월부터 유사 캠페인 진행 중

캘리포니아주 농식품부 산하 우유자문위원회(CMAB)가 지역 유제품으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장면을 담은 TV 광고를 제작해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주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11월부터 한 달간 TV를 통해 방송되는 이 광고는 휴대전화와 비디오콜을 통해 들려오는 이메일 수신 알람과 함께 정신없이 시작되는 가정의 아침 풍경과 아침식사로 캘리포니아산 유제품을 여유 있게 즐기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CMAB 관계자는 “아침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바쁜 일과준비로 인해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원격근무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시간을 찾을 수 있게 돼 이 광고를 기획했다” 고 말했다.

아침 식사로 캘리포니아산 유제품을 권하는 CMAB의 캠페인은 이미 지난 6월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유명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소셜 미디어에 등장해 아침식사를 포함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가정주문(stay-at-home order) 행태로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CMAB는 11월에도 아침식사 레시피를 보여주는 유사한 형태의 홍보 아이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주요 우유생산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는 이 외에도 지역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캘리포니아산 인증마크(Real California Milk Seal)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美 캘리포니아주, 지역 유제품으로 여유 있는 아침 식사 홍보 광고’,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1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0월 13일

13. (2020년 10월 26일) USDA, 코로나19 기간 동안 4억 달러 해당 신선식품 등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of the UN)는 2020년 9월 29일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 행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즉, i)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 ii)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 iii)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개발이 푸드 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는 식량 생산, 소비, 처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레스토랑, 호텔 등이 영업을 중단하여 해당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50~60%p 감소한 반면, 소비자들의 식품 수요가 식료품점과 식품 배달 업체로 옮겨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요 변화에 식품 공급 사슬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식물 폐기량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식품 산업은 i) 수요 변화(통조림 과

일 및 채소에 대한 수요 증가), ii) 공급 변화(수입 식품 물량 감소), iii) 물류 변화(증가한 초과 공급 식품 보관을 위한 냉장 보관 수용량 조절), iv) 상품 용량 조절(레스토랑용 대용량에서 식료품용 소용량으로 전환) 등 네 가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

식품 산업은 소비되지 않은 식품을 푸드뱅크와 빈곤계층 구호 활동 단체에 공급하였다. Kroger Co.의 경우 우유 재고를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공급하였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미국 농무부(USDA)는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program을 통해 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낙농 식품, 육류를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푸드뱅크와 비영리 식품 지원 단체에 공급하였다. 대학생들은 FarmLink 프로젝트를 통해 초과 생산 식품을 생산자로부터 푸드뱅크로 배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은 i) 미국의 식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 ii) 식품 기부 증가로 빈곤 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 상황 개선, iii) 음식 쓰레기 감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평균 1천 5백 달러에 해당하는 음식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19 기간 증가한 가정 내 요리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쓰레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높아진 음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음식 쓰레기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소는 푸드시스템 개선에 기여한다. 미국에서는 한 해 생산된 식품의 1/3 이상이 소비되지 않고 음식쓰레기로 낭비된다. 식품이 낭비되면 식품 공급 활동에 연관된 토지, 물, 노동, 에너지와 같은 투입 요소 역시 낭비된다고 볼 수 있다. 식품 공급 활동이란 생산, 가공, 운송, 저장, 음식 쓰레기 처리 등이다.

음식쓰레기와 관련하여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푸드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증가한 온라인 주문,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통해 생산, 주문, 재고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잔여 음식물의 경우 동물 사료 혹은 퇴비로 사용하는 등 새로운 생산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식품 생산자, 가공업체, 식료품점과 연계하여 식품 공급 사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식품의 공급 및 운송을 조절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셋째, 혁신,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개발이 푸드시스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식품 공급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냉장 보관과 같은 온도 유지 운송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는 기술개발에 해당하며, 식품 운송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인프라에 해당한다.

미국 농무부는 가공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버려지는 잔여물들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는 혁신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AIA(Agricultural Innovation Agenda)에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50%p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새로운 물질이란

크린랩, 말린 과일 스낵 등을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제고’,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2. 2020.10.26일자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USDA), “Three Key Message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Day of Awareness of Food Loss and Waste” (2020.9.29.)(<https://www.usda.gov/media/blog>)

II. 남미

[아르헨티나]

1. (2020년 10월 5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 어려워지자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해 대두 수출 세율 인하

아르헨티나가 경기침체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두 수출세를 3%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금요일 경제부가 세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공된 대두박과 대두유에 대한 부과금은 약 28%에서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다양한 비율로 인하될 것이다. 모든 수출세는 1월까지 점진적으로 다시 인상될 것이다.

경제부 장관 Minister Martin Guzman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국가의 비축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과 분석가들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 재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농가들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절실히 필요한 수출 달러를 창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현금 작물이다. 옥수수과 밀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한 이 나라는 유럽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이다. 그동안 33% 수준이었던 대두유와 대두박 수출세는 10월에 28%로 떨어진 뒤 11월 29.5%, 12월 30%, 1월 31%로 인상된다.

아르헨티나의 CIARA(대두분쇄협회)는 금요일 오후 감세 계획안이 불충분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IARA는 항상 모든 수출세와 곡물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제약이 시장에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18년 이후 위축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봉쇄로 더욱 위축됐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0,599명의 아르헨티나가 COVID-19로 사망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아르헨티나가 안전한 미국 달러를 위해 현지 페소 화폐를 쏟아부으면서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자본통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대두와 그 파생상품은 15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2019/20년 시즌부터 3,220만 톤의 대두를 판매했으며, 이는 수확량의 약 60%가량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에 등록된 판매량보다 440만 톤 적은 것으로 공식 자료에 나타났다.

2020/21년 작물은 이달 말에 파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cuts soy export tax rate in bid to boost FX reserve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5일자

2. (2020년 10월 7일) COVID-19로 어려워진 재정 보충 위해 도입한 감세가 농민들은 분쇄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판매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을 듯

가공된 대두유와 대두박보다 대두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수출세 제도는 일부 농부들이 자국의 방대한 오일시드 분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배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남미 곡물 강국은 대두의 주요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르는 대두유와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이다.

정부는 지난주 수출을 늘리고 필요한 달러를 모으기 위해 대두와 부산물에 대한 수출세율을 연말까지 인하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부들은 대두 수확물을 팔기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출세율 인하의 목표는 농부들의 대두 저장고를 비우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COVID-19로 악화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창지대의 농부 Eduardo Bell은 “우리는 계속해서 농작물을 붙잡고 현금이 필요할 때만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국제 거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의 공식 환율과 지역 농장 공동체에서 사업을 지배하는 비공식 페소 시장의 금리 사이에 90% 이상 퍼져 수익이 손상되었다고 말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파쇄량은 재배농가들이 대두를 축적함에 따라 올해 9.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2019/20년 시즌부터 대두를 3,220만 톤 판매해 수확량의 약 60%, 전년도 같은 시점에 등록된 판매량보다 440만 톤이 감소했다.

2020/21년 작물은 이번 달에 파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농업 경영 분석가인 Pablo Adreani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모든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는 농부들이 곡물을 팔도록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페소화 가치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거래로 평가절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Adreani는 “정부가 재배자들에게 대두 재고를 팔도록 설득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분쇄협회 CIARA-CEC은 아르헨티나가 모든 대두 수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산물 수출 경쟁국인 미국과 브라질은 대두나 파생상품에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농부 David Hughes는 “수출세가 아예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farmers say tax cuts favor crushers, won’t spur selling(아르헨티나 농민들은 감세가 분쇄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판매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을 것임)’,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7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31/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3. (2020년 10월 14일) 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일부 항구에서 무제한 임금 파업 시작-24시간 만에 파업 철회

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연맹(Oilseeds Workers Federation)은 화요일 오후 2시(1700 GMT)부터 공개 임금파업을 시작했다고 노동계가 밝혔다. 노동부는 종종 의무적인 협상을 지시하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산업의 파업은 중단된다.

연맹의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의무복귀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 연맹은 로사리오 곡물 운송 허브의 일부 지역에서 대두 분쇄 노동자들을 대표하지만, 대부분의 분쇄 작업이 로사리오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대두 수출국이자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 소,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대두박 가축 사료의 세계 최고 공급국이다. 성명을 통해 “분쇄 및 수출기업과의 임금협상은 두 달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일시드 노동자들은 물론 아르헨티나의 전체 노동자 계층도 생활임금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두 파종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10월은 농산물 출하로 바쁜 달이 아니다. 그러나 COVID-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출 달러가 필요하다.

CIARA(아르헨티나 식용유 공업협회)의 한 대두 분쇄 업체 관계자는 노동자와 영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농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노조, 노동자와 함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당국, 대두 노동자 파업 종식

아르헨티나 당국은 수요일에 주요 화주인 Cargill, Bunge BG.N, Glencore GLEN.L, Dreyfus가 소유한 공장에서 현지 대두 가공을 일시적으로 오일시드 노동자연맹(Oilseed Workers)이 임금파업을 24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성명에서 정부가 다음 주에 회사 및 근로자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의 복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지시한 이번 조치로 오늘 오후 1시(GMT 1600) 파업

과 10월 20일 청문회 개최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핵심 곡물 중심지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중단은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노동 중단이 중요한 국가 산업에 영향을 줄 때 협상을 강요한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돼지, 소, 가금류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세계 최고의 대두박 축산물 수출국이다. 이번 파업은 경기 침체와 채무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침체된 국내 폐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 보유고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 달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이달에 수출세를 인하하여 주요 현금 작물인 대두의 판매를 촉진하고 무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외환 불확실성으로 농작물을 계속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스프레드는 117%로 확대돼 암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식환율로 급여를 받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고용주들이 인플레이션에 뒤지지 않는 임금을 내놓기 어려워 일손을 멈추는 일이 흔한데, 정부는 내년엔 29%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oilseed workers start open-ended wage strike at some ports(아르헨티나 오일시드 노동자, 일부 항구에서 무제한 임금 파업 시작)’,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4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42/page/1)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authorities step in to end soy workers strike(아르헨티나 당국, 대두 노동자 파업 종식)’,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5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4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브라질]

1. (2020년 10월 16일) 옥수수과 대두의 높은 가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브라질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두 작물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

브라질 정부는 금요일 메르코수르 무역 블록 밖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이 전했다. 익명성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경제부 내 기술기구인 Gecex 회의에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면제의 가능성은 브라질에서 두 곡물 모두 기록적인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브라질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부는 금요일에 Gecex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그 외에는 언급을 피했다. 브라질 농업부도 언급을 피했다.

브라질 경제부는 9월 초 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포함된 메르코수르 외부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과 대두에 대한 부과금은 현재 8%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 to discuss eliminating tariffs on corn and soy, source says(브라질,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관세 철폐 논의)', 「KREI 해외곡물 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16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4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Ⅲ. 유럽

[EU]

1. (2020년 7월 27일)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 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였다.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났다.

[전체수출]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국가별 수출 증가)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함.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출 감소)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하였다.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수입]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 증가)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이다.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입 감소)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0. 2020.07.27일자

- 원문출처: EU 집행위원회,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 2020.7.3.일자(<https://ec.europa.eu/info/news>)

2. (2020년 8월 7일)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8월 발효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약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8월 발효되었다. 유럽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EU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으로 관세 삭감, SPS조치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해결, 지리적 표시(GI) 보호, 정부 조달·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됐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위원은 “베트남은 양국 간 무역협정 하에서 EU와 무역을 하는 77개국 중 일원이 된다. 이번 협정은 EU와 활력에 찬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위기 이후 부흥에 이바지할 만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타결에 이르기까지 무역협상으로 베트남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 개선되는 것으로, 무역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관련된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감축

EVFTA에서는 EU에서 베트남에 대한 모든 수출 품목의 65%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간 점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수출 품목의 관세 99%가 철폐된다.

이번 발효에 따른 철폐하는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율과 철폐까지 기간은 <표 4>과 같다.

<표 4> 베트남의 주요 농축산물 관세율과 철폐 시기

품목	관세율		철폐시기
	발효 전	발효 후	
하드계 치즈(팔미지아노, 랫자노, 콘테 등)	10%	0%	4년차
유제품(분유, 크림, 버터, 브루 및 후레쉬 치즈)	15% 이하		6년차
닭고기	40% 이하		11년차
냉동돼지고기 및 햄(티로라, 쥬베크, 하부고 외)	25% 이하		10년차
냉동 돼지고기	15%		8년차
쇠고기 및 양고기	30% 이하		4년차
조정 식료품(베이비 푸드 포함)	40% 이하		6-8년차
빵 및 페스트리	40%		6년차
사과, 양배(洋梨), 포도, 복숭아, 감귤류	30% 이하		4년차
올리브 오일	20% 이하		4년차
밀	5%		4년차
맥아 및 전분	20% 이하		6-11년차
초콜릿 및 코코아조제품	30% 이하		6-8년차

자료: 유럽위원회

지리적 표시(GI) 보호

169개의 EU산 음식물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된다. 이 중에는 팔미지아노·랫자노와 페타와 같은 치즈와 티 롤러 슈백(오스트리아의 베이컨)과 슈바르츠 베르타 당근(독일의 햄)등 식육 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협정에 의해 미래적으로는 새로운 GI가 목록에 추가되는 것이다.

관세 할당

EU는 베트남에서 수입에 의해 EU의 생산자가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할당을 설정하게 되었다(표 5).

〈표 5〉 주요 품목의 관세할당 수량(발체)

품목(대상 코드)	2020년 8월1일~ 12월 31일	2021년 이후(매년)
계란 (0408.11.80, 0408.19.81, 0408.19.89, 0408.91.80, 0408.99.80)	208	500
마늘(0703.20.00)	168	400
스위트콘(0710.40.00, 2001.90.30, 2005.80.00)	2,083	5,000
버섯(0711.51.00, 2001.90.50, 2003.10.20., 2003.10.30.)	146	350
타피오카 전분(1108.41.00)	12,500	30,000
설탕류(1701.13.10, 1701.13.90, 1701.14.10, 1701.91.00, 1701.99.10, 1701.99.90, 1702.30.50, 1702.90.50, 1702.90.71, 1702.90.75, 1702.90.79, 1702.90.95, 1806.10.30., 1806.10.90)	8,333	20,000
특수 당(1701.14.90)	167	400
가공전분(솔비톨 등) (2905.43.00, 2905.44.11, 2905.44.19, 2905.44.91, 3505.10.10., 3505.10.90, 3824.60.19)	833	2,000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2019년 교역액은 455억 유로(62조 2,222억 원: 1유로 =1,367.52원⁵⁾)에 이른다. 또 EVFTA는 EU와 ASEAN회원국 사이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으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이며, 일본, 한국과의 기존 협정과 함께 EU의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0月号

[영국]

1. (2020년 9월 25일) 영양전문가,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양 불균형 경고

최근 유럽 등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의 영양전문가들이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2/3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두 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체 칼로리의 18%, 단백질의 37%를 공급하는 축산업이 토지사용량의 83%,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는 학술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식물성 식품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다.

5) 1유로=1,367.52원(2020년 10월 6일 기준 환율) 적용

그러나 영양전문가들은 이 같이 동물성 식품 섭취를 급격히 줄이거나 식단에서 동물성과 식물성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질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영양재단(BNF)의 Judy Buttriss 박사는 “철의 경우 25%, 요오드 60%, 아연과 비타민B2의 50% 이상을 육류, 유제품, 달걀, 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 영국의 10대들이 10년전에 비해 철과 같은 주요 영양소 섭취가 크게 줄어 문제가 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성 식품을 급격히 줄일 경우 심각한 영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물성과 식품성 단백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뉴질랜드 AgResearch의 선임연구원인 Simson Loveday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에 들어 있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 식물성으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양자의 조화로운 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영양전문가, 식물성 식품 편취시 심각한 영양 불균형 경고’,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5일자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9월 8일자

2. (2020년 10월 16일) 英, 코로나19로 인한 우유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료 구매비용 크게 줄어 올해 낙농가 수익 회복 전망

올해 영국의 낙농가 수익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유 폐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료 구매비용이 크게 줄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재무회계법인 올드밀과 농업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원유 생산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낙농가의 두당 평균 수익이 233파운드 약(35만 원)로 전년도 141파운드(약 21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해, 낙농가의 수익이 작년 하락 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원유생산비 중 기계 관리비가 10% 오르는 등 현장 운영비는 증가했으나, 2019년 기상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사료비 지출이 두당 97파운드(약 14.5만 원)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평균 원유가격은 리터당 31펜스(약 465원) 선을 유지했는데, 이는 우유 구매업자들이 공급안정을 위해 생산자들에게 우유생산을 줄이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했고, 생산자들이 이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생산성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수익성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는 리터당 평균 12펜스(약 180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하위 10%는 5.48펜스(약 82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컨설팅 그룹 관계자는 상하위 낙농가의 수익격차로 인해 연간 2.5%의 낙농가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위 10% 생산자들이 경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4-5년 안에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英, 올해 낙농가 수익 회복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스」, 2020년 10월 16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0월 12일자

[독일]

1. (2020년 10월 5일)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 독일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 발표

EU 집행위원회 소속의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는 독일의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독일은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 3위 규모의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2016년 기준, 독일 내에는 약 275,000개의 농업 기업이 있으며, 940,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규노동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약 24.2%, 임업에 17.3%, 축산에 33.0%, 그리고 조정 관리 종사자가 20.6%로 나타났다.

■ 독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신지 국가 변화(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폴란드	85.9	84.7	77.9	76.4	68.1	63.6	60.3	—
루마니아	8.2	10.0	16.9	19.0	26.8	31.7	34.7	93.5
기타	5.9	5.3	5.2	4.6	5.1	4.7	5.0	5.6

독일 내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 근로자는 평균 300,000명이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6년 기준 약 286,300명의 계절 근로자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독일 계절 근로자의 대부분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외에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남동부 유럽이 주요한 노동 공급 국가이다. 계절 근로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균형을 이루지만, 비계절 이민노동자는 남성이 64%로 나타났다.

계절 근로자는 노동집약적인 아스파라거스 생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노동집약적인 생산이 필요한 아스파라거스는 2018년 기준, 23,400ha의 농지에서 133,000톤이 생산되었다. 2015년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자, 농가는 이전에는 시간당 4~5유로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7유로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임금이 생산비의 절반을 구성하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는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가들은 생산량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계절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아스파라거스 농가들은 타 국가에서의 인력 공급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및 보호가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사회보장제도 적용 노력)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에 70일 혹은 3달 이하로 근무하는 한계 고용(marginal employment) 형태로 고용이 되는데, 고용주는 이들을 고용할 때,

의무사회보장금을 면제받도록 보장받아,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용 인원도 증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정책이지만, 고용된 계절 근로자들이 70일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의무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고용) 축산에서는 독일 외부의 하도급 업체가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근로 계약이 일반적이며, 2015년과 2017년에 축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보호 법안이 발효되자, 축산 이주노동자들은 대량의 이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민자 고립 유도) 이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여권을 빼앗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공정한 계약 방식) 구두계약을 진행하거나, 독일어로 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민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서 사본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EU 집행위원회, “Are Agri-Food workers only exploited in Southern Europe - Case studies on migrant labour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 (2020.9.16.)(<https://enrd.ec.europa.eu/>)

[아일랜드]

1. (2020년 8월 28일) 총액 5000만유로의 비육우 생산자용 COVID-19지원 조치 채택

아일랜드 농업·식량·해양부는 8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은 4만 2,000호의 비육우 생산자용으로, ‘비육우 생산자 지불(Beef Finishers Payment(BFP))’로 총 5,000만 유로(683억 7,600만 원)의 소득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육용우 부문이 농인 가격 하락과 출하처의 수입 중단 등 어려움으로 생산자 단체가 정부에 대한 긴급 지원 실시를 요청했다(아래 참조(2020년 4월 21일 발 海外情報)).

동 성의 Dara Calleary 장관은 이번 발표 때 COVID-19가 육용우 부문에 가져온 위기 및 농촌 경제에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도시 봉쇄(락다운)으로 외식산업 폐쇄에 의해, 특히 ‘비육 생산자들은 가격 하락과 출하 제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COVID-19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동시에 농촌 지역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를 할 예정으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로 하고, 대상 비육우와 대상 생산자의 요건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대상 소의 주요 요건

-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2일까지 기간에 도축된 비육우·도축 시 8개월령 이상일 것
- 대상 생산자가 도축 전 최저 30일 동안 소유하고 있을 것(이에 못 미치는 경우 이전 소유자가 대상 생산자 30일 이상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 1호당 최대 100두까지

대상 생산자의 주요 요건

- 대상 기간에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것
- 2020년 유럽 연합(EU)공동농업정책(CAP)의 기본 지불제도(BPS) 대상자
- 아일랜드 정부 식량청(Bord Bia) 쇠고기, 양고기 품질보증계획 멤버 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이 멤버인 사람

또한 지급 단가는 1마리당 100유로(136,752원)을 예정하고 있지만, 지불액이 5,000만 유로의 예산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단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조치는 유럽 위원회가 정하는 회원국의 잠정적인 보조 틀에 근거한 아일랜드 국가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인가에 아일랜드 정부에서 유럽 위원회에 신청 중이다(아래 참조(令和2年4月8日發海外情報)).

【参考】

- 아일랜드生産者団体 `肉用牛農家への緊急支援の即時実施を要請.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影響に対応(海外情報(令和2年4月21日發)),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0.html
- 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対応する農業・食品部門を引き続き支援(海外情報(令和2年4月8日發)),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10月号

[러시아]

1. (2020년 9월 29일) 러시아 농업부, 대규모 작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 여전히 유효 밝혀

러시아 농림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용된 자국 곡물 수출 쿼터 메커니즘이 올해 수확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월요일 밝혔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국내 물량 확보가 필요할 경우 2021년

1~6월로 곡물 수출 쿼터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성명에서 “수확 전망이 밝지만 곡물 수출에 대한 비관세 쿼터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관련이 있으며, 농업부는 앞으로 개선해 이 조치를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장관 Oksana Lut은 월요일 러시아 곡물 최대 수출국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농업부는 가능한 할당량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러시아 곡물수출협회는 회의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현 마케팅 시즌에 곡물 쿼터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정확한 쿼터제 도입은 아직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1~6월 할당량은 곡물 2천만 톤이 될 수 있다. 농업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농업부는 러시아의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곡물 수출 가능 물량이 4,5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7월 1일부터 1,200만 톤을 수출했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기록적인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농민들은 이미 전체 면적의 88%에서 1억 1,280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s agri ministry: grain export quota mechanism relevant despite large crop’,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9월 29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19/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0월 8일) 러시아, COVID-19 절정이던 봄에 사용되던 곡물 수출 할당제 메커니즘 최근 다시 정부 의제로 떠올라. 곡물수출 전망치 상향조정, 1월~6월 수출 쿼터 축소

러시아가 1~6월 수출 쿼터 발표를 준비하면서 2020/21년 곡물 수출 가능 흑자 전망치를 500만 톤에서 5,0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올해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가 상승과 루블화 약세로 인해 COVID-19 전염병이 절정에 이르렀던 봄에 사용되던 곡물 수출 할당제 메커니즘이 최근 다시 정부 의제로 떠올랐다. 부총리 Victoria Abramchenko는 러시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Abramchenko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0/21년 마케팅 시즌에 5,0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업부는 이전에 4,500만 톤의 수출을 예상했었다. 농업부는 수요일에 쿼터가 1월~6월까지 계획되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무역업자들은 러시아가 7월 1일 이후 이미 1,400만 톤을 수출했기 때문에 2020/21

년 수출 전망치가 높아지면 무역업자들에 대한 쿼터로부터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잘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은 9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0/21년 곡물 수출 예상량이 5,000만 톤으로 1월~6월까지 2,000만 톤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월과 9월에는 러시아 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겨울의 출하량은 보통 더 낮지만, 많은 것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세계 가격, 환율에 달려있다. 유럽의 한 무역업자는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에 대한 애정/혐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밀은 큰 수출 수입원이지만 국내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항구에 선박이 크게 줄지어 있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블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수출 판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컨설팅업체 Sovecon은 현재로서는 쿼터가 2020/21년 수출에 큰 제한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지난주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ups grain export forecast, Jan-June export quota looms(러시아는 곡물 수출 전망치 상향 조정, 1월~6월 수출 쿼터 축소)’,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 2020년 10월 8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3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슬로바키아]

1. (2020년 9월 28일) 슬로바키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 2월보다 약 5,000명 감소한 7만 3,300여 명으로 집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8월 말 기준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2월보다 약 5,000명 감소해 7만 3,3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우크라이나인으로, 7월보다 약 153명 감소해 2만 1,200여 명에 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루마니아인(8,000명), 체코인(6,000명), 헝가리인(5,000명) 등으로 주로 인근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23.), Slovak Spectator, The coronavirus crisis keeps reducing numbers of foreign workers (2020.9.21.)

[에스토니아]

1. (2020년 10월 19일) 비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스토니아에서 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체류 보장 요구, 정부는 더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Eesti Kaubandus-tööstuskoda)가 단기로 국내에 체류하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스토니아에서의 근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에스토니아상공회의소는 이 방안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속해있는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자가 받는 국가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EU 국민이 학업이나 노동을 이유로 에스토니아에 입국하는 절차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비EU 국민이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법은 공공질서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무부는 비EU 국민의 국내 입국을 통제함으로써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농업·건설업 등 여러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계절별 임시 노동자로서 여름에만 에스토니아에서 노동하던 우크라이나인들의 발길이 끊김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1]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10.13.), (Err News, Commerce chamber asks government to prolong foreign worker stay periods (2020.9.10.))

IV.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9월 22일) 호주,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 촉구,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도 비난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도 비난을 하는데 동조하는 조치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으며 수입산 유제품이 급증했다. 그러나, 면역력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국내산 소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미국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안전법) 제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자, 중국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심이 고취되며 수입산 유제품 소비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호주산 우유 수입량도 20% 이상 줄어들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中, 애국소비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2일자

- 원문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9월 21일자

[뉴질랜드]

1. (2020년 9월 24일) 라보뱅크, 3/4분기 식품서비스 판매 증가 등 소비 회복세...코로나 19 등 불확실성 여전하여 뉴질랜드 원유가격 kg당 380원선으로 상향전망

라보뱅크가 2020/21 시즌 뉴질랜드의 원유가격 전망을 올해보다 25원 오른 380원선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보뱅크는 최근 발표한 3/4분기 보고서에서 식품 서비스 부문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유제품 소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20/21 시즌 역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 최근의 유제품 소비회복은 각국 정부 차원의 유제품 구매 재고관리 소비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측면이 큰 작용을 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지가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봤다. 지금까지 중국의 유제품 소비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으나, 국내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고 주요 수입국과의 외교마찰로 당국의 재고전략 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주요 7대 수출지역의 원유생산은 4/4분기 1.3%, 내년 상반기 1.0%, 2/4분기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뉴질랜드 원유가격 전망, kg당 380원선으로 상향-라보뱅크’, 「글로벌낙농뉴스」 2020년 9월 24일자

- 원문출처: nzherald.co.nz, 9월 22일

2. (2020년 10월 5일) 폰테라,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으로 석탄 대체, 2050년까지 전 지역 공장 무배출 시스템화 추진

뉴질랜드 유업체 폰테라가 테아와무투 지역 유가공장의 연료를 석탄에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으로 대체했다. 연초 폰테라는 석탄 가스와 전기를 혼용해서 원유를 가공해 온 해당 공장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에너지 보전협회(EECA)와 목재펠릿업체인 Nature Flame과 협력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젝트는 폰테라의 장기 전략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업무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뉴질랜드 전역에서 가동 중인 모든 공장의 무배출 시스템화(Zero-emission)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료 전환이 마무리되면 전국 석탄 사용량이 약 10% 줄고, 탄소 배출량은 연간 8만 4천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폰테라,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으로 석탄 대체, 2050년까지 전 지역 공장 무배출 시스템화 추진’, 「글로벌낙농뉴스」 2020년 10월 5일자

- 원문출처: bioenergy-news.com, 9월 21일

V. 아시아

[중국]

1. (2020년 9월 22일) 中, 코로나19로 중국내 우유 소비량 증가 반면, ‘애국소비’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올해 해외 제품 온라인 점유율 23%...전년대비 12% 감소

코로나19로 중국내 우유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주요 수입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해외 유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조사업체인 차이나 스킨(China Skinny)의 유제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티몰(T-mall, 온라인몰)을 통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에서 해외 브랜드가 23%를 차지했으며 2016년 52%에서 2019년 35%까지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신뢰를 잃으며 수입산 유제품이 급증했으나, 면역력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유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국내산 소비가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가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고, 미국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안전법) 제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국심이 고취되며 수입산 유제품 소비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호주산 우유 수입량도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는 중국이 판매량 기준 2022년 세계 최대 우유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관계 악화로 해외 우유 생산자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中, 애국소비로 해외 유제품 입지 좁아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9월 22일자

- 원문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com), 9월 21일자

2. (2020년 10월 12일) 中,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라이브 커머스 인기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자 비대면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도시를 넘어 농촌까지 확산되어 약 9억 5,000만 명의 중국 네티즌 중 농촌 네티즌 수가 3억 명에 이르고, 2019년 기준 농촌 온라인 커머스 매출액은 약 1조 7,000억 위안(약 292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농산물 매출액은 3,976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등 라이브 커머스가 농촌경

제 활성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17~2020년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단위: 억 위안) ■



※ 중국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자료: 아이아이미디어리서치 제공)

또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방안의 일환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5일 상무부는 <전염병 방제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유통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农产品产销对接工作的通知)>를 발표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라이브 커머스 추진정책 ■

발표	부서	정책명	주요 내용
2020년 2월 25일	상무부	<전염병 방제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유통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공고> 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农产品产销对接工作的通知	•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식품 판매·농촌 빈곤퇴치 추진
2020년 3월 24일	저장성	<소비진작 및 경제성장 안정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提振消费促进经济稳定增长的实施意见	•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라이브 커머스 활용 격려
2020년 3월 24일	광저우시	<광저우시 라이브 커머스 발전 행동방안(2020-2022)> 广州市直播电商发展行动方案(2020-2022)	• 라이브 커머스 산업존 구성,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MCN 업체 육성, 왕홍 브랜드 양성, 인기 왕홍 배출 등을 통해 광저우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자료: 中信证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4월 20일 중국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라이브 방송 중에 중국 산시성 자수이현 농촌 마을 타오바오 생방송 스튜디오를 찾아 현지 특산물 자수이 목이버섯을 홍보하면서 “전자상거래는 농촌지역 빈곤 퇴치와 지역경제 도움이 돼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날 평소 1만 명 정도 되는 시청자가 시 주석의 깜짝 등장으로 2,200만 명가량이 동시 시청했고, 이날 하루 약 23톤에 달하는 목이버섯이 판매되어 평소 4개월 분량에 해당하는 320만 위안(약 5억 5,000만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시진핑 주석의 ‘좋아요’는 “사상 최강 다이렉트”로 불리며 각 포털의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는 등 핫토픽이 되어 인터넷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중국 인민망신전자상거래연구원이 2020년 4월 24일 발표한 <중국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농촌 건설, 전자상거래 농촌 보급 종합 시범 및 전자상거래 탈빈곤 등 사업의 심층 전개와 더불어 중국의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의 온라인 소매 성장세가 계속 되고 농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다시 농촌 전자상거래 물류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농산물 브랜드화 도시진출(農貨上行) 체계에서 지능화·시스템화·규모화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신 인프라”의 대표 주자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 라이브 커머스 인기’,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0, 2020. 10. 12.

- 원문출처: 아주경제, “[라이브 커머스가 뜬다] ② 中도 라이브 커머스 급성장... 쇼핑 판도 바뀌” ,2020.6.2.

매일경제, “中 농촌에 전자상거래 보급 확산...탈빈곤 속도낸다” , 2020.6.25.

한국일보, “코로나19 이후 농가에 부는 라이브 커머스 바람” , 2020.7.29.,

한국경제, “시진핑, 벚꽃 판매 방송에 ‘깜짝등장’...라이브 커머스 뒤흔들” , 2020.9.12.

헤럴드경제, , “제주 라이브커머스 교육기관 한국 유튜브크리에이터교육센터, 특달 연계 라이브커머스 방송 성료” , 2020.9.23.

이투데이, “ [중국은 지금] 중국 농촌도 라이브 커머스 전성시대!” , 2020.10.6.

KOTRA 해외시장뉴스, “코로나19 영향, 중국 라이브 커머스 열풍” , 2020.5.20.

3. (2020년 10월 24일) “中, 美농산물 25조9000억 구매“...무역합의 목표 71% 수준. 코로나 책임론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 관심 높아

중국이 올해 미국산 농산물 230억 달러(약 25조9000억원) 어치를 수입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농무부(USDA)와의 공동보고서를 게시하고,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담긴 57개 약속 중 최소 50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은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크게 확대했다며 “올해 중국은 230억 달러(약 25조 9,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농산물 구매 목표액의 7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USTR은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이후 중국은 미국 식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방해하는 수많은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 왔다”며 “이같은 구조적인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농부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품목별로는 미국산 옥수수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인 870만 톤을 기록했다. 콩 판매량은 2017년 대비 두 배가 늘었다. 수수의 경우 1~8월 중국에 6억 1,700만 달러가 판매되며 2017년 동기 5억 6,1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육류 수출로는 돼지고기가 지난 5개월 동안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8월까지 쇠고기 판매량은 2017년 전체 수출액의 3배 이상이다. 농무부는 “그밖에 애완동물 사료, 건초, 땅콩, 완성 식품 등 농산물의 대중국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소니 퍼듀 미 농무부 장관은 “농산물 시장에 더 공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 높은 가격의 유지는 농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더 많은 매출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고, 미국 농업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대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8개월 전 협정이 발표된 이후 중국과의 농업 분야 무역 관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농민과 목장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中, 美농산물 25조9000억 구매”…무역합의 목표 71% 수준’, 2020년 10월 24일자 기사

[일본]

1. (2020년 8월 24일)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음식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외식 감소로 인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톤이었다.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버터] 일본의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다.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4, 2020.8.24.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食料自給率・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 2020.8.5.(<https://www.maff.go.jp/>) 및 일본농업신문, “食料自給38% 微増 小麦増収 目標とは隔たり 19年度”, 2020.8.6.(<https://www.agrinews.co.jp/p51559.html>)

3. (2020년 10월 5일) 고령 인구 및 취업 현황 외

일본 총무성에서 2020년 9월 20일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인구) 및 고령자 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고령 인구]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는 3,617만 명이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7%로 인구와 비율 모두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남성은 1,573만 명(남성 인구 25.7%), 여성은 2,044만 명(여성 인구 31.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71만 명 많다. 세계 고령 인구비율의 평균은 9.3%이며, 일본의 고령 인구비율은 28.7%로 세계 201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23.3%, 포르투갈 22.8%, 핀란드 22.6% 순이며, 한국은 15.8%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년~1974년)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도 일본의 고령화율은 3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현황] 고령 취업자 수는 2004년 이후 16년 연속 증가해 왔고, 2019년 기준 892만 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15세 이상 취업자 중 고령 취업자의 비율은 13.3%였다.

(산업별) ‘도매업, 소매업’이 12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업, 임업’이 108만 명, ‘서비스업(기타)’이 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고령 취업자 비율은 ‘농업, 임업’이 52.2%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6.4%, ‘서비스업(기타)’ 22.6% 순이었다.

(고용 형태) 임원 12.2%, 자영업·가족종업원 30.9%, 임원을 제외한 취업자 56.9%이다. 임원을 제외한 취업자의 77.3%는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남성 30.9%, 여성 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령 취업자 수가 2020년 4월까지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지유지직불금 대상 면적 감소]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농지 및 농로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적 기능 지불금 중,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유지직불금의 대상 면적이 2014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다. 농지 및 농로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적 기능 지불금은 농가 등이 만든 활동 조직이 수로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단가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단위면적(10a)당 논 3,000엔, 밭 2,000엔이며, 홋카이도는 논 2,300엔, 밭 1,000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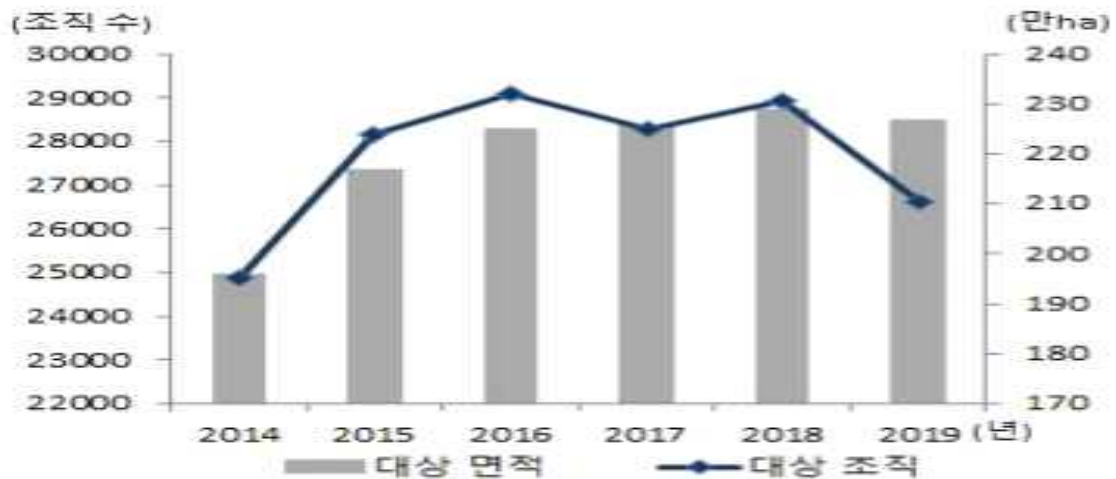
농지유지 직불금 대상 면적은 2014년 196만ha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229만ha, 활동 조직은 2014년 2만 4,885개소에서 2018년 2만8,348개소로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따라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대상 면적은 227만ha로 전년 대비 1만 8,495ha가 감소하였으며, 활동 조직 또한 1,730개소가 감소하였다. 이는 인력 부족 및 직불금 신청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성은 인력 부족에 따른 활동 조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이외의 인력 및 여성을 조직에 유입한 경우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농림수산성 ‘공통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활동 조직 중 농지면적이 200ha 이상인 광역활동조직은 899개소에서 947개소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5% 증가하였다.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조직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활동조직은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행정작업이 집약되는 장점이 있다.

■ 농지유지직불금 면적 및 조직 수 추이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_vol.39 (2020.10.5.)

- 원문출처: 일본 총무성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敬老の日」にちなんで-” (2020.9.20.), 일본농업신문, “農地維持支払 初の減少 農水省” (2020.9.23.),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多面的機能支払交付金実施状況” (2020.8.)(<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l260.html>, <https://www.agrinews.co.jp/p51965.html>, <https://www.maff.go.jp/j/housin/kanri/r1jissi.html>)

4. (2020년 10월 19일) 일본 수입(収入)보험 코로나19 특례 제정, 식품 손실 대응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보험 제도 특례를 제정하였다. 수입보험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보험기간(1년) 중 농업인(개인·법인)의 농산물 판매 수익이 기준수익의 90%를 밑돌 때 그 금액의 90%를 상한으로 보상하는 구조이다.

5년간 평균 수익을 기준수익으로 하며, 2021년 기준수익은 2016년도~2020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2021년에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농림수산성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1년도 수입보험 기준수익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수입보험 코로나19 특례를 제정하였다. 개인은 2020년도의 수입, 법인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의 수입 중 코로나19에 의한 피해가 더 큰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정 가능하다.

식품손실(food loss) 대응 추진

일본 소비자청은 2020년 6월 9일 소비자백서를 발표하였으며, 2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식품손실 감소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일본 국내 식품폐기물량은 2,550만 톤에 달하며, 이 중에서 섭취 가능함에도 버려지는 식품손실량은 612만 톤

이다(2017년도 추계). 원천별로 보면, 식품제조업 1,411만 톤, 식품도매업 12만 톤, 식품소매업 123만 톤, 외식사업 206만 톤, 일반가정 783만 톤이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식품손실이 발생하며, 식품손실은 소비자의 의식·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품손실을 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Ⅰ 특례를 적용한 2021년 수입보험 신규가입 예시 Ⅰ



생산·제조	규격 외 농수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약 80%가 구매 경험이 있었음. 규격 외 농수산물을 손쉽게 구매 가능한 경우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통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되어 있어 ▲납품기한 완화, ▲유통기한 연월 표기, ▲상품 적정량 발주 등 공급망 전반에 개선이 필요함.
소매	수요예측 실패, 판매기한 초과 등에 의한 재고 발생,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선도가 높은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가까워진 상품을 할인하는 경우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0%의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응답함.
외식	과잉조리, 손님이 남긴 음식으로 인해 식품손실이 발생함. 소비자의 약 90%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을 찬성하는 한편, 실제로 포장해 가는 비율은 약 20%임.
소비	(소비 1) 식품손실의 약 46%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됨. 주로 주식(밥, 빵, 면류), 채소, 반찬 순으로 발생하며, 발생 이유는 '먹고 남아서', '상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순으로 조사됨. (소비 2) 식품별 적합한 정리 및 보관을 통해 과다구매 및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소비 3) 소비자청 조사에 따르면, 식품이 버려지는 것이 아깝다는 인식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유발이 식품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효활용	섭취에 문제가 없으나 폐기 위기에 놓인 식품을 저소득층 및 어린이식당*, 재해 지역 등 식품이 필요한 곳에 제공하여 식품손실 감소를 추진, 그 밖에도 ▲푸드뱅크 기반 확보 및 인지도 부족, ▲식품 기증에 따르는 리스크, ▲다양한 주체와 연계 등의 과제가 있음. ※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및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

식품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 개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식품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수입(收入)보험 코로나 19 특례 외’,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1, 2020.10.19.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업성 “収入保険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特例」について”(2020.10.6.)(<https://www.maff.go.jp/>), 일본 소비자청 “令和2年版消費者白書概要”(2020.6.9.)(<https://www.caa.go.jp/>)

5. (2020년 10월 26일) 일본, 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농촌 현황에 변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20.3.31. 발표)의 농촌정책·토지이용 방법 프로젝트 추진 검토를 위해 새로운 농촌정책 검토회(이하 검토회)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 5차 검토회에서는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과 농촌 소득과 고용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구감소 사회>

[일본 인구] 일본 총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쿄권에 쏠려 있다. 2050년에는 약 절반의 지역에서 인구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고령화·인구감소) 농산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간지역일수록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가구 수가 9가구 이하인 마을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 마을에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 영향)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지역에서는 빈집증가, 경작 포기지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귀농·귀촌 증가>

[귀농·귀촌 증가] 최근 3대 도시권(도쿄 권, 오사카 권, 나고야 권)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 인구를 상회하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귀농·귀촌 동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방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40대의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 거주민의 약 40%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촌 생활] 지방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 농촌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취미)이 34.8%, 농림어업(주요 수입)이 29.8%로 농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의 젊은 층에서 농업 연계되는 것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두 지역 거주(듀얼라이프)] 농촌 이주에 관한 관심뿐만이 아닌, 도시와 지방 두 지역에 거주하는 듀얼라이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나 자신을 위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관계인구] 정주 인구 및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한 관련성을 맺는 인구로 3대 도시권의 18세 이상 거주자(약 4,678만 명) 중, 약 20%(약 1,080만 명)가 일상생활권, 통근 등에 의한 관계인구로 집계되었다.

[농촌 이주조건] 농촌 이주 중점 요건으로는 ‘생활이 유지 가능한 수입’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소비·지출 비교) 도시와 소도시(인구 5만 명 미만)·농촌의 1세대당 월간 평균 소비·지출을 비교하면 소도시·농촌은 대도시의 90%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소도시·농촌은 광열·수도, 교통·통신비는 대도시를 상회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도시를 하회하였다.

<코로나19 영향>

[업종·고용형태·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행률은 업종, 고용형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업종 중 30%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재택근무 경험 비율은 교육·학습지원 50.7%, 금융·보험·부동산 47.5%, 도매업 45.5% 순으로 높았으며, 농림어업은 17.7% 수준에 머물렀다.

[재택근무 지속 의향]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5월 조사에서는 62.7%, 7월 조사에서는 75.6%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 관련 의식변화] 재택근무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삶과 업무의 균형 중에서 삶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직업선택·부업 등에 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지방 이전 관심 증가] 20대를 대상으로 U·I턴 이주 및 지방 전근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20년 2월에는 21.8%가, 4~5월은 36.1%로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14.3%p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에 리스크를 느낌’, ‘재택 근무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가능’ 등이 있었다.

[도시권 사무실 수요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도쿄 중심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무실 크기를 축소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이며,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근무 형태로 일본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다. 워케이션 도입에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과반수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며, 재택근무를 이용 중인 회사원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형 농촌관광(농림수산물), 산림 서비스(산림청), 국립공원(환경성) 등을 활용한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근무방식] JA(일본농협)의 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이 JA조합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노동력 지원체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자, 사회적약자 등을 고용하여 농작업 팀을 꾸려 JA를 통해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위탁받은 농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현장은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등과 연계하여 타 업종의 노동력을 농업계로 유입하여,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의 노동력

흡수를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삶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020년 7월 29~8월 24일, 농업을 포함한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시행(응답 145건) ① 농업을 하면서 타 업종을 함께 종사하는 것의 장·단점 • (장점) 수입확보·안정화, 타 분야 정보확보, 네트워크 구축 • (단점) 농작업과 일정 조정 ② 타 업종과 농업을 함께 종사함에 있어 농업의 매력 • 생활 충실, 자금, 지역 및 사람과 교류 ③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련하여 개선 및 도전하고자 하는 것 ※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복수의 일을 종사하는 근로방식 • 효율화, 사업확대, 6차 산업화 ④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를 함에 있어 새로운 개선 및 도전 시 장애 요소와 원하는 환경 • (장애 요소) 인정농업인이 아니면 강습 수강 불가, 농지 확보 • (희망 사항) 멀티워크에서 본격적인 농업으로 전환 모델, 농지 임차·매매 원활화 ⑤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저변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농업 진입장벽 낮추기, 신규 농업인 기술지도, 신규 농업인 지도처 지원 등 ⑥ 농업을 포함한 멀티워크 애청 • 프리스타일애그리, 플러스원농업, 농마루워크, 농 and fan, 멀티농민, 멀티애그리, 멀티파머, 반농반× 등 ⑦ 기타 의견 • 멀티워크를 하는 이유는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며,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함. • 농업에 집중하고 싶지만, 시간과 수익, 위험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새롭게 농업에 도전 시 실패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함. • 개인 생산자는 농산물 판매가 힘들. 쉽게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정비가 필요함. <자영 농업인 수익> • 자영 농업인의 약 90%가 연간 수익이 400만 엔을 밑돌며,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를 차지함. <농업 외> • 농업 외에 1가지 일을 겸하는 비율은 약 70%이며, 2가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0% • 자영 농업 이외의 일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일의 연간 소득은 약 60%가 400만 엔 미만이라고 응답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일본 농촌 현황(인구감소, 귀농귀촌, 코로나19 영향)제고’,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2. 2020.10.26일자

- 원문출처: 일본 농림수산업성 “農村における所得と雇用機会の確保に向けて(農村をめぐる事情と検討課題)” (2020.10.13.), (https://www.maff.go.jp/j/study/nouson_kentokai/farm-village_meeting.html)

[캄보디아]

1. (2020년 9월 21일) 캄보디아,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 192달러(한화 약 22만 8,000원)로 결정

캄보디아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 192달러(한화 약 22만 8,000원)로 결정했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와 사측 대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모여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긴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190달러(한화 약 22만 5,500원)에서 2달러(한화 약 2,500원) 인상한 192달러로 확정되었다.

사측 대표와 노동자 대표는 최저임금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지부진했다. 먼저 노동자 대표는 190달러에서 12달러 인상한 202달러(한화 약 23만 9,800원)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곳이 많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달러 낮춘 173달러(한화 약 20만 5,400원)로 할 것을 주장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임금 협상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0년과 동일한 190달러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동결안을 보고받은 캄보디아 총리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2달러 인상한 192달러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고, 이것이 그대로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다.

사측과 노동자측 모두 만족하지는 않으나 수용하는 모습이다. 먼저 사측은 최저임금이 2달러 인상된 것이 현재 캄보디아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상폭이 크지 않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2달러 인상폭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도 있다면서, 최종 결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측도 2달러 인상한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사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이 오랜 기간 중지된 것을 목격했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임금협상을 마치고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8]」, 2020년 9월21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14.), (Khmer Times, Phnom Penh Post, Ecotextile News 등, 2020.9.10.)

2. (2020년 10월 23일) 캄보디아에 다수의 외국 농업 기업이 진출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일자리 창출 기대

캄보디아에 다수의 외국 농업 기업이 진출했으며 여러 지역에서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타코 그룹(Thaco Group), 황안지아라이 그룹(Hoang Anh Gia Lai Group), 타디 컴퍼니(THADI company) 등 베트남 계 농업 기업 3개가 합작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하였다.

합작 기업의 농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기간에도 작업을 지속하면서 노동자에게 월 250~350달러(한화 약 28만 3,800~39만 7,300원)의 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그 결과 합작 기업 농장 프로젝트에 고용된 캄보디아 주민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기업은 현재 1만 3,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고용했으며, 그중 1,000명은 농업 전문가와 컨설턴트 등 전문 인력이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정책에 맞추어 새로운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캄보디아 내에서만 총 8,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합작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형 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캄보디아 정부에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2]」, 2020년 10월 26일자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10.23.), (Khmer Times, Viet Explorer, Vietnam Plus 등)

[방글라데시]

1. (2020년 9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 낙농업 지원 위해 방글라데시의 프란유업에 1,000만 달러 규모 대출 계약 체결

9월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낙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3대 유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프란유업(PDL, Pran Dairy Limited)에 1,000만 달러(한화 약 118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대출로 프란유업이 기존 공급체인망에 포함되어 있던 1만 2,000명의 소규모 낙농주들을 포함해 추가로 1,200명의 낙농주들에게 원유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민간 부문 운영부의 투슈나 도라(Tushna Dora)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방글라데시의 농업 관련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였다. 투슈나 도라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유와 같은 필수 식품의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지원이 공급망의 혼란을 해결하고 방글라데시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농업 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연간 990만 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전체 우유 수요의 70%에 해당한다. 또한 방글라데시에는 약 30만 개의 낙농장이 있으며, 약 1,020만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23.), Daily Observer, The Financial Express 등 (2020.9.14.)

[부탄]

1. (2020년 9월 28일) 부탄 수출협회, 민간 수출업자의 수출 위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카다멈 등 농산물 수출 재개 예정

9월 17일 부탄 수출협회(BEA, Bhutan Exporters Association)는 민간 수출업자의 수출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에 따라 카다멈(card amom)⁶⁾ 등 농산물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근 부탄 농업부가 마련한 표준 운영 절차는 카다멈, 사과, 오렌지, 생강 및 야채 수출에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탄 수출협회는 올해 약 100톤의 카다멈을 방글라데시로 수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탄 당국이 발행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환적 지역을 드나드는 차량은 엄격히 모니터링될 예정이다. 또한 수입 및 수출업자들은 물품 통관 하루 전까지 세관에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탄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국가봉쇄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부탄의 농산물 수출이 영향을 받아 온 바 있다. 부탄 농업부는 국가봉쇄에 의한 농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과를 비롯해 카다멈, 감귤 등의 상업용 작물을 사들이고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돌지 체링(Dorji Tshering) 부탄 수출협회 회장 국가봉쇄가 완화될 경우 파사카(Pas

6) 생강과에 속하는 향료 식물로 인도 말라바르 연안이 원산지다. 열매껍질 속에 있는 씨앗을 말려서 향신료로 사용.

akha) 국경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사과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9]」, 2020년 9월28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2020.9.18.), Kuensel, Agriculture products export to resume from tomorrow(2020.9.16.))

[베트남]

1. (2020년 10월 13일) 비나밀크, 코로나19로 베트남 지역에서 31만 8천명 근로자 학교급식 지속 위해 정부 등과 학교우유 가격 조정 위해 협의 중

베트남 최대 유가공기업인 비나밀크(Vinamilk)가 지난 9월 30일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자사의 학교우유 프로그램 운영 14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비나밀크는 2007년 바리어붕 따우(Ba Ria-Vung Tau)에서 베트남 기업 최초로 학교우유 프로그램을 시작해 2016년 베트남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23개 지역에서 3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비나밀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매년 학교우유 급식률이 기대치를 초과하는 좋은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하노이 지역은 급식 시작 2년 만에 3-10세 어린이의 91%인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급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바리어붕 따우와 박닌 지역의 경우는 급식률이 각각 100%와 99.3%에 달하고 있다.

학교우유 프로그램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닌 지역 어린이들의 발달 저하률은 2013년 26.9%에서 2020년 23.6로 줄었고, 바리어붕 따우 지역의 영양실조율은 2007년 28.4에서 올해 18.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나밀크는 올해 코로나19로 베트남 지역에서 31만 8천명의 근로자가 학교 급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에 따라, 정부, 주정부 등과 학교우유 가격 조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비나밀크, 14년간 베트남 학교우유급식 활성화에 큰 역할’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13일자

- 원문출처: acrofan.com, 10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1. (2020년 10월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문제 해결방안으로 메디나 지역 관개 농지 개선 위한 수자원 처리 프로젝트 착수 발표

9월 1일 파이잘 빈 살만(Faisal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Madinah) 주지사가 메디나 지역의 관개 농지 개선을 위한 수자원 처리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사우디 관개청(Saudi Irrigation Organization)은 수자원 최신택 관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총 4단계로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는 첫 단계에서는 메디나 지역 내 농장 300여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메디나 북부의 대추야자 농장 지역과 자연보호 지역,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메디나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지하수 수자원 보호 및 현지 농민 지원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메디나 이외에도 홍해 연안 지역에서 바닷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9월 7일 사우디 농림수자원환경부는 수경 농업 전문기업인 국가수경농업그룹(National Aquaculture Group), 샤르크 수경농장(Aquaculture Sharq Farms)과 홍해 바닷물을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첨단 기술 도입과 설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생 가능한 수자원과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극히 부족하여 국내 식량 필요량 중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사우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은 식량 안보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에 사우디는 수자원 개발과 관개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농업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식량 수입 경로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필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사우디농축산투자회사(SALIC)과 사우디국영해운공사(National Shipping Company of Saudi Arabia)가 합작하여 지난 8월 24일 사우디곡물회사(National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다. 사우디곡물회사는 안정적인 식량 수입과 관리를 위해 안부(Yanbu) 항구에 2022년까지 연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곡물 관리 터미널을 건설하고, 2023년에는 처리량을 5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0]」,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17.), Successful Farming 등(2020. 9. 7.)

[카자흐스탄]

1. (2020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데, 투르케스탄(Turkestan) 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이 목화 수확하는 현장 목격

카자흐스탄 투르케스탄(Turkestan)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이 목화 농장에 투입되어 수확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따르면 만 14세부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지만,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른 결과이다. 카자흐스탄 목화 농부들은 그동안 해외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목화를 수확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때문에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5세 청소년 노동자는 하루에 약 30kg의 목화를 수확하며, 최대 2달러가량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자흐스탄 남부의 목화 농부들은 불가피하게 청소년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교사들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이 목화 수확에 동원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지방과 농촌 가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추수에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2]」, 2020년 10월 26일자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0.19), (Eurasianet, Radio Azattyq 등)

Ⅵ.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2020년 9월 21일)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 코로나19로 인해 영내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경고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Nigeria Economic Summit Group)이 코로나19로 인해 영내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라오예 야이엘로아(Laoye Jaiyeola) 나이지리아 경제정상그룹 CEO는 코로나19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야이엘로아 CEO는 국내 농업이 불과 1.6% 성장한 점과 많은 인구를 고려하면 나이지리아는 식량난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야이엘로아 CEO는 현재 농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브로드밴드와 핀테크를 이용한 성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타이위 오예델레(Taiwo Oyedele)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세 담당관은 전문 회계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2/4분기 나이지리아의 GDP는 전년 동기보다 약 6.10% 감소하였다. 이로써 나이지리아의 GDP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섰다.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의 경우, 전년보다 6.63% 쇠퇴하였다. 반면 금융업, 보험업, IT, 농업 등 일부 비석유 산업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8]」, 2020년 9월21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15.) (Nairametrics, Punch Nigeria 등, 2020.8.24.)

2. (2020년 10월 12일) 나이지리아 정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 수입 통제 강화

나이지리아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 수입 통제를 강화하였다. 9월 10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중앙은행에 지시한 식량과 비료 수입 대금에 필요한 외화 결제 중단 명령을 재확인하였다. 부하리 대통령은 식량과 비료 수입을 위해 외화를 지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식량과 비료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식량 수입 대금으로 외화를 지출하는 민간기업이 나이지리아 국내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

였다.

또한 부하리 대통령은 국내 민간기업에 식량 수입 대금 지출이 아닌 국내 농업 발전과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함마드 사보 나노노(Mohammed Sabo Nanono) 나이지리아 농업개발부 장관 역시 니제르(Niger), 타라바(Taraba), 지가와(Jigawa), 켈비(Kebbi) 네 개 주에서 나이지리아 전 국민의 식량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양의 쌀을 생산한다고 지적하며 식량을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쌀, 닭고기, 달걀, 카사바, 옥수수 등 주요 식량을 포함한 43개 품목 수입에 대한 외화 지급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 2019년 4월 부하리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식량 수입업자에 대한 외화 지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농업 생산량 증가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농업 인프라 개선, 사료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30일 나노노 장관은 국내 소규모 농가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6,000억 나이라(한화 약 1조 8,485억 원) 규모의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식량 가격 폭등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국내 식량 운송망을 교란하면서 나이지리아 식량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나이지리아통계청에 따르면, 식품 가격 상승률은 5월과 6월 각각 15.04%와 15.18%를 기록했으며, 2020년 1월 2만 6,500나이라(한화 약 8만 1,646원)였던 쌀 50kg 가격이 2020년 7월 3만 4,000나이라(한화 약 10만 4,753원)까지 상승하였다.

부하리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현재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강조하며, 폭리를 추구하는 일부 상인의 이기적 행동이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0]」,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9.18.)
(The Guardian, Forget border reopening for now, eat what we produce, Buhari tells Nigerians 등 (2020.9.14.)

VII. 글로벌

1. (2020년 8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비건 소비 트렌드로 부상

[비건 개념] 비건이란 개념은 1944년⁷⁾ 영국의 도널드 왓슨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vegetarian’ 철자의 ‘veg’ 와 ‘an’ 을 결합해 만들어져, 처음에는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동물성 제품의 섭취 및 재료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식습관 또는 생활양식을 일컬어 흔히 ‘채식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채식주의 유형은 섭취가 허용되는 식재료에 따라 크게 플렉시테리언(경우에 따라 육류 허용), 페스코(생선 허용), 폴로(가금류 허용), 락토-오보(달걀과 유제품 허용), 오보(달걀 허용), 락토(유제품 허용), 그리고 가장 엄격한 수준의 채식주의인 ‘비건(vegan)’으로 분류된다.

[비건 소비 트렌드로 부상] 최근 들어 식품을 넘어 패션, 화장품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비건(Began) 바람은 올해의 강력한 트렌드이자 ‘핫’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등 거대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시대의 비건이란 개인은 물론 동물과 자연 및 생태계 등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존중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비건(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는 극단적인 채식주의) 트렌트는 기존 축산품을 대체하는 식품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체식품 수요 증가]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체식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식품을 구할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성분과 영양이 비슷해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뜻하며, 최근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과 신념 등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대체된 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건 인구] 전체 인구의 30~40%가 채식주의자로 추정되는 인도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 채식주의자 수는 약 1억 8,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완전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은 5,400만 명 수준이다. 2020년 8월 18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9년 150만 명으로,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고,

7) 1944년 비영리단체 영국 비건협회 초창기에 비건식이 규정되면서 나온 개념

2020년에는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건 시장규모] 전 세계 비건 식품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27억 달러에서 2019~2025년에는 연평균 9.6%의 성장률과 함께 약 24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비건을 중심으로 대체 식품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내 식물성 식품 소매판매액은 4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 성장했고, 2026년에는 전 세계 비건 식품시장 규모가 243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하기도 한다.

웰빙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품업계에서도 비건이 이제는 까다로운 소수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 중이며, 채식주의자가 아니지만, 건강과 윤리적인 이유로 순식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건 식품 다양화 추세] 최근 업체들이 비건 제품의 맛을 끌어올리면서 비건은 ‘건강을 위해 맛있는 것을 참고 먹는다’는 고정관념도 깨고 비건을 위한 식품이라면은 물론, 만두, 아이스크림, 볶음밥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식물성 육류 제품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미국의 비욘드 미트(Beyond Meat)는 완두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효모 섬유질 등과 배양하여 실제 고기의 맛, 형태, 육즙까지 재현한 대체육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환경보호 및 건강·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 열풍과 함께 비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기업들은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응해 식물성 계란⁸⁾, 유제품, 라면 등 각종 비건 제품과 육류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베이커리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다. 이는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비거니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건인증 획득·상품출시 잇따라] 유통업계는 빠르게 채식 인구를 위한 상품과 서

8) 식물성 계란(소이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재료를 통해 계란과 비슷한 맛이나 효과를 내는 식물성 계란 식품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분류

비스를 출시 중이며, 비건 식품은 물론 ‘좁은 문’으로 통하는 비건 인증을 받은 상품도 속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비건 제품은 동물성 원료 및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배제하는데, 이러한 비건 제품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승인을 통한 인증마크가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는 비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비건 인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비건 인증마크 대신 ‘비건이 섭취하기 적합한’ 혹은 ‘식물성 기반’ 문구를 표시하기도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면서 젓소에서 얻는 전통적인 우유의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기반의 음료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2018년 미국의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0년 대비 25.9% 감소했지만 식물성 우유 제품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우유 제품 대체 시장도 2025년까지 22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7.2%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육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대체 육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이후에도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채식 선호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식물성 식사가 권장됨에 따라 비건을 포함한 채식 문화는 트렌드를 넘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도 식량자급률·식량자급력 지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4, 2020.8.24.

- 원문출처; 농수축산신문, “[대체축산식품 시장을 조망하다] ① 대체육 시장 현황과 국내 사례”, 2020.8.4일자, 농민신문, “코로나19로 김치 수출 ‘날개’” 2020.8.5일자, 전자신문, “[모션그래픽]채식주의 끝판왕 ‘비건’...세계 트렌드 자리매김” 2020.8.13일자, NEWSIS, “[대체식품 전성시대]가치소비 중시...건강한 먹거리 뜬다” 2020.8.17일자, 경향신문, “[친절한 식품 이야기] 코로나9와 기후변화 넘는 ‘한국형 비건’” 2020.8.17일자, 글로벌이코노믹, “‘비건’ 인구 잡아라...유통업체는 채식 열풍” 2020.8.19일자, 서울경제, ““150만 비건 입맛 잡아라”...채식 차리는 식품업계” 2020.8.20일자

2. (2020년 9월 22일) 주요 곡물 선물가격,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로 하락

밀 선물가격(▼3.5%)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5%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봉쇄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이탈하면서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매도세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밀 수출 검사량이 46만 9,939톤으로 지난주의 69만 2,422톤 보다

감소했으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월요일 오후 미 농무부의 보고서를 앞두고 9월 20일 현재 미국 겨울 밀 작물의 22%가 파종되었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옥수수 선물가격(▼2.3%)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3%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위험회피 거래일에 매수 포지션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락했다. 무역업자들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한 상품 매각을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계절적 수확 압박도 옥수수 시장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월요일 오후 미 농무부의 보고서를 앞두고 9월 20일 현재 미국산 옥수수 수확량의 11%가 수확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두 선물가격(▼2.0%)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0%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투자 펀드가 광범위한 상품 매도의 일환으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4월 1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약세는 증가하는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대두박과 대두유 또한 원유시장의 약세로 압력이 가중되면서 급락했다. 무역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최근의 가격 급등이 향후 몇 주 동안 중국인의 매수세 둔화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면서 일부 수출 호조 뉴스를 일축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대두 수출 검사량을 131만 1천 톤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13만 2천 톤, 파키스탄에 13만 2천 톤, 미지의 행선지에 17만 1천 톤의 대두를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9월 22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06/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3. (2020년 9월 28일) 코로나19처럼 식량위기도 갑자기 온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더 엔지니어가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나 텔레비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세상은 농부가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농부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전직 조종사 겸 엔지니어인 주인공 쿠퍼가 아들 대학 진학 문제로 만난 교장이 한 말이다. 영화는 모래폭풍과 병충해 등으로 감자와 밀이 멸종하고 옥수수조차 수확량이 감소. 인류가 식량 부족으로 멸망할 위기를 맞은 2067년이 배경이다.

코로나19가 수개월째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후유증이 몇 년 갈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충격 못지않게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농산물 이동과 유통이 제한되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다. 코로나19 초기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은 국경 폐쇄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을 우려,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당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8년 46.7%이지만 곡물 자급률은 23%에 그친다. 연간 1600만t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다. 2018년 기준 쌀 자급률은 97.3%이나 밀 1.2%, 옥수수 3.3%, 콩 25.4% 등은 자급률이 매우 낮다.

코로나19 초기에 일어난 마스크 대란을 기억할 것이다. 마스크가 부족해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었다. 약국을 전전하기 바빴고, 쇼핑몰 클릭 신공을 발휘해야 했다. 결국 정부가 개입했고, 한동안 구매수량을 제한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배정받은 요일에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했다. 인공지능(AI)과 5G 시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마스크를 식량이란 단어로 바꿔 보자. 식량 대란은 마스크 대란과 비교할 수 없는 참사가 될 것이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수급 탄력성이 없다. 농부가 구슬땀을 흘려야 하고, 자연이 선사하는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한다. 곡물이 익을 몇 개월의 시간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과학자의 노파심으로 여겼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갑자기 등장해 일상을 멈추게 했다.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있는가. 식량위기도 돌연 인류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알려 줬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와도 관련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탐욕이 지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나온 괴물이다. 인류는 탄소에 의존한 과학기술과 공장식 농축산업으로 풍요를 누리는 대신 지구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렸다. 자연 속에서 갈 곳 잃은 바이러스는 인류를 숙주로 삼았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감염병도 활성화되고 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등등. 전문가들은 발생 주기도 빨라지고 더 센 ‘놈’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프랑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인간 활동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줬다”고 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딜 핵심과제로 ‘농장에서 포크까지 전략’을 발표했다. 식량 시스템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처) 서울신문, ‘[세종로의 아침] 코로나19처럼 식량위기도 갑자기 온다’, 2020년 9월 28일자 기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8029005&wlog_tag3=naver)

4. (2020년 10월 6일) IDF,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세계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행사에서 세계 학교우유정보 허브 구축 계획 밝혀

IDF는 지난 9월 30일은 세계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개최된 자체 온라인 기념행사에서 ‘세계 학교우유 정보허브’를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운영될 이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공급 사례와 데이터,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서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등 학교우유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IDF 사무총장 캐롤라인 이몬드는 “2020년 세계 학교우유의 날을 맞아 낙농을 통해 전 세계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 비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새로운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IDF는 수개월 내에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올해 세계 학교우유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3월 발간됐으나 런칭 행사가 지연된 바 있는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운영현황 블레틴 출간기념 행사와 함께 미국과 인도의 학교우유 프로그램이 성장기 영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등이 발표됐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IDF, 세계 학교우유정보 허브 구축키로’,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6일자

- 원문출처; IDF 본부, 9월 30일자

5. (2020년 10월 7일) '곡물자급률' 역대 최악... 결국 해답은'-[식량주권]곡물값 폭등 이후 10년, 새로운 식량안보 위협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07~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 이후 약 10여 년 만에 다시 식량위기가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으로 국제적인 물류 체계가 마비되고 자국의 식량위기 등을 우려한 일부 국가들이 선제적인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요 국제기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식량위기 때 각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곤욕을 치렀던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지난 3월 31일, 사무총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먹거리 공급에 미칠 영향 혹은 국제 무역 및 먹거리 보장(식량안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 대응의 핵심은 자국민만을 위한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⁹⁾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 기구 사무총장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경 시작된 수출금지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계속 늘어나 총 22개의 국가에서 수출금지 조치가 발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20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이상기후도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평년보다 고온이 나타났고 대서양의 허리케인, 캐리비안 지역의 열대폭풍 등이 매우 자주 발생했다¹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기후위기가 2020년 한 해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우연이지만 세계화된 먹거리체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필연이다.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을 저술한 립 윌러스는 기후변화와 삼림 파괴, 그리고 산업적 농업, 특히 공장형 축산이 얹혀 코로나19와 같은 병원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 2020년 우리에게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경고이며, 생태적인 방식의 생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식량위기 당시에 '값싼 먹거리의 시대는 끝났다',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주권¹²⁾ 실현'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식량주권 운동, 먹거리 정의 운동 등 다양한 대안적 먹거리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이 운동들의 주장과 가치가 제도화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0년 전에는 소수의 거대한 농식품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적인 곡물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후 국가별, 지역별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식량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체계를 만들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국내외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식량주권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농민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먹거리를 통해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비용을 전가하는 기업을 규제하려는 흐름이다. 에콰도르와 네팔, 볼리비아는 헌법에 식량주권의 개념을 포함시켰고,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와 영양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했다¹³⁾.

둘째, 세계화된 먹거리체계가 초래한 소농의 몰락, 먹거리 안전 위협, 농민과 시민의 권리 침해 등에 대응해 먹거리체계를 (재)지역화하려는 흐름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이후 지역 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도

9) QU Dongyu, Tedros Adhanom Ghebreyesus and Roberto Azevedo(2020) "Mitigating impacts of COVID-19 on food trade and markets". Joint Statement by Directors-General of FAO, WHO and WTO.

10)FAO(2020), "The dual threat of extreme weather and the COVID-19 crisis : Anticipating the impacts on food availability" .

11)Wallace, R(2020), "How Global Agriculture Grew a Pandemic" .

12)국제 소농들의 조직인 농민의길 La Via Campesina은 식량주권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자, 그들 스스로 농업 및 먹거리체계를 규정할 권리" 라고 정의함.

13)송원규 · 윤병선(2017),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27(2) : 7-43.

시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는 이와 같은 흐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식량주권 제도화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인도 케랄라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전달을 위해 지역 여성네트워크가 무료로 운영하는 공동체 부엌을 활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공동체지원농업과 농민시장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위생 지원을 시행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농민시장과 공동체 텃밭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선언했고, 세계의 많은 곳에서 무료급식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먹거리 공급(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적 목적) 등 대안적 유통경로의 확대 시도가 있었다¹⁴⁾.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먹거리체계의 지역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의 구축, 농민의 생산권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중요한 의제를 통해 만난다.

(출처) 오마이뉴스, ‘ ‘곡물자급률’ 역대 최악... 결국 해답은: 식량주권-[식량전쟁①] 곡물값 폭등 이후 10년, 새로운 식량안보 위협’ , 2020년 10월 7일자 기사

6. (2020년 10월 8일) 코로나가 극빈층을 1억명 늘렸다

미국 뉴욕의 명품 매장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의 조부유층의 순자산은 3월말보다 37%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EPA·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 빈곤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약 8,800만~1억 1,400만 명이 추가로 극빈층이 됐다고 밝혔다. WB는 2021년 말까지 극빈층 증가 규모가 최대 1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빈층은 하루 1.9달러(약 2,200원), 연간 700달러(약 81만 원)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로써 전세계 극빈층은 최대 7억 2,9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9.4%에 달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WB가 예측한 2020년 말 전세계 극빈층 규모 6억 1,50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때문에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세계 극빈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성장한 덕에 극빈층 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의

14)IPES FOOD(2020), “COVID-19 and the crisis in food systems : Symptoms, causes, and potential solutions” .

피해는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WB는 일반적으로 극빈층이 저학력 농업 종사자들에게서 나왔지만 점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10명 중 8명은 중간 소득 국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WB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장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지난 30년 간 지구촌 빈곤 감소라는 목표를 향한 노력에 최악의 좌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이를 되돌리기 위해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순자산이 3,000만 달러(약 350억 원) 이상인 ‘수퍼갑부’ 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손실을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부유층 자산 조사업체 웰스X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말 대비 8월말 기준 수퍼갑부의 부의 총량은 9%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3월말에 비하면 수퍼갑부의 부는 불과 5개월여 만에 약 27%나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6조 8,310억 달러(약 7,900조 원)에 달한다. 수퍼갑부의 수는 이 기간 18% 늘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경기부양과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회복시키고 부의 창출 기회를 다시 만든 것이다.

특히 증시 급등 수혜를 받은 북미 지역의 수퍼갑부는 이 기간 순자산이 37%나 늘었다. 마야 임버그 웰스X 분석책임자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기업 이익에도 주식 활황으로 코로나19 초기에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극단적이었다”고 밝혔다.

(출처) 헤럴드 경제(인터넷판), ‘코로나가 극빈층을 1억명 늘렸다’, 2020년 10월 8일자 기사

7. (2020년 10월 12일) 유제품 시장,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느리지만 꾸준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여

지난 10월 6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2.2% 오르며 2회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버터, 전지분유, 체다치즈가 2주 전인 9월 15일 대비 각각 8.4%, 1.7%, 0.4% 올랐고, 탈지분유는 0.9% 내렸다. 전지분유는 8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3천 달러(약 350만 원)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2회 연속 올랐던 탈지분유는 조정을 받으며 가격이 소폭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느리지만 꾸준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버터와 전지분유의 상승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9월 25일자)은 전지분유와 버터는 주

전 대비 각각 0.8%, 0.9% 올랐고, 탈지분유는 변동이 없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 GDT 유제품 시세 2.2% 올라 - 2회 연속 상승’ ,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0월 6일자, USDA Dairy Market news, 9월 2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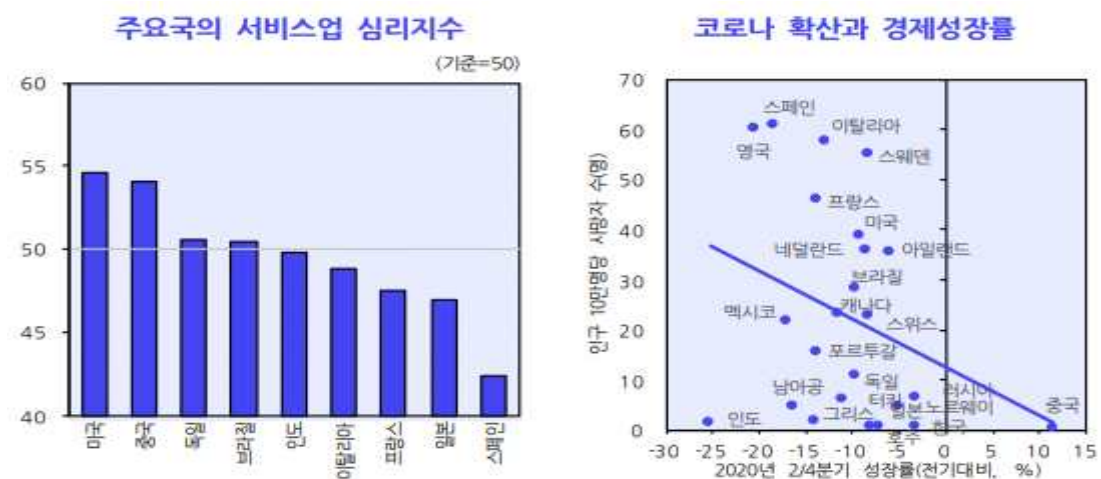
8. (2020년 10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전망(OECD, KDI 경제동향)

세계경제: 주요국이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었고, 제조업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유로존과 일부 신흥국에서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악화되거나 기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등 경기 하방압력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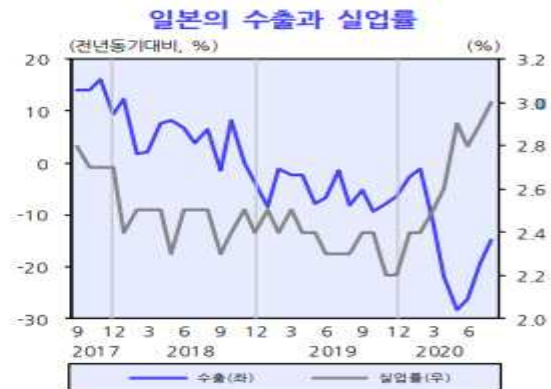
미국은 소비와 고용 부문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주요 경기 및 선행 지표가 부진하고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8월 소매판매(2.6%)와 실업률(9월: 7.9%)이 개선되었으나, 내구재주문(-6.2%)과 설비가 동률(71.4%)은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미약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감염 증가로 주요 경기 관련 심리는 위축된 모습이다. 7월 소매판매(0.4%)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완만하게나마 개선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및 건설업 관련 심리지수(9월)는 여전히 기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일본경제는 수출과 생산 등 주요 실물지표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8월 산업생산(-13.3%)과 수출(-14.8%)이 주요 산업과 품목에서 급감한 가운데, 소매판매(-1.9%)도 자동차·연료 수요가 감소하여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 통신장비와 자동차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매판매(0.5%)가 소폭의 증가로 전환되었고, 수출(9.5%)은 미중 간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는 2020년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21년에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OECD는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감염 확산이 심화되어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다시 시행될 경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OECD)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2020년	-4.5 (-6.0)	-3.8 (-7.3)	-7.9 (-9.1)	-5.8 (-6.0)	1.8 (-2.6)	-10.2 (-3.7)	-7.3 (-8.0)	-1.0 (-1.2)
2021년	5.0 (5.2)	4.0 (4.1)	5.1 (6.5)	1.5 (2.1)	8.0 (6.8)	10.7 (7.9)	5.0 (6.0)	3.1 (3.1)

주: () 안은 2020년 6월에 발표된 재확산이 없는(Single-hit) 시나리오 전망치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June - September 2020.

국제금융시장: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내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소폭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 지표도 상승하였다.



(출처) 한국개발원, 「KDI 경제동향」 2020년 10월호

9. (2020년 10월 15일) 9월 FAO 유제품 가격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식품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2.1% 올라...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9월 유제품 가격지수는 102.2포인트로 7월 100포인트 대 회복 이후 3개월째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최저치를 기록했던 5월 대비 8.3%,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2.5% 높은 수준이다.

버터는 단기수요 증가와 유럽지역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올랐고, 치즈도 유럽지역의 식품 서비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와 국내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탈지분유 또한 유럽지역의 계절적 원유생산 감소 영향으로 다소 올랐고, 전지분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유 생산이 계절적으로 피크를 맞은 가운데, 수입수요 특히 중동지역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렸다.

한편 9월 FAO 식품가격지수는 97.97로 전달대비 2.1%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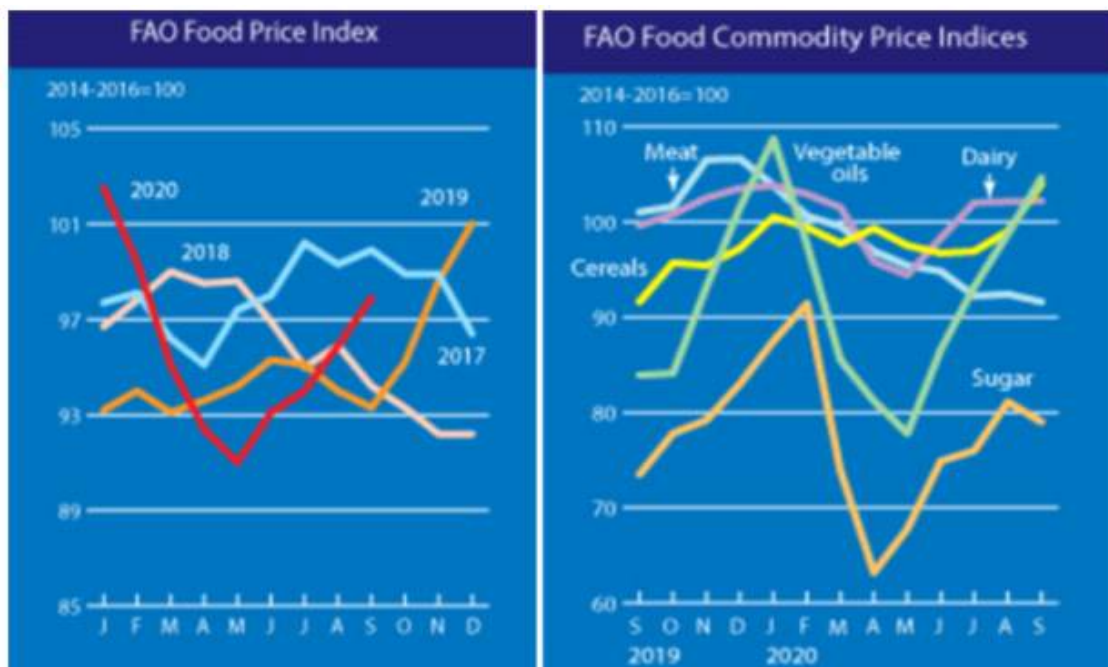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 9월 FAO 유제품 가격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12일자

- 원문출처; fao.org, 10월 8일자

10. (2020년 10월 14일)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97.9포인트,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으로 회복

FAO가 9월 세계식량지수를 발표하였다. 동 지수는 전월 대비 2.1% 상승하여 5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완연하게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그림 7> 연도별 세계식량가격지수(왼쪽) 및 품목별 가격지수(오른쪽)



품목별로는 곡물·유지류 가격은 상승하였고, 유제품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육류와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다. 옥수수 가격은 상승하였고, 돼지고기는 독일 ASF로 다시 하락했다.

〈표 6〉 2020년 9월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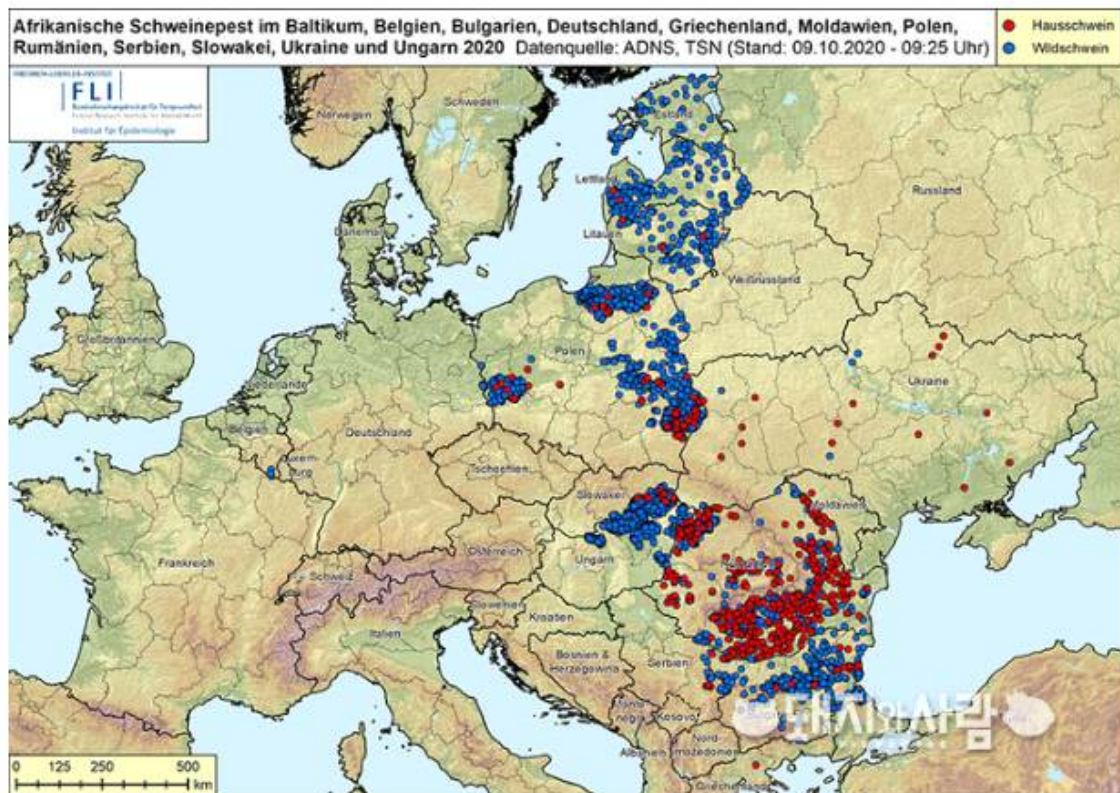
단위: 포인트	8월	9월	증감	비고
육류	92.4	91.6	0.9% ↓	돼지고기·양고기 하락, 가금육 상승, 쇠고기 안정세
유제품	102.1	102.2	-	탈지분유·버터·치즈 상승, 전지분유 하락
곡물	99.0	104.0	5.1% ↑	밀·옥수수·수수 상승, 쌀 하락
유지류	98.7	104.6	6.0% ↑	팜유·해바라기씨유·대두유 모두 상승
설탕	81.1	79.0	2.6% ↓	브라질·인도 생산 증가 전망에 하락
종합	95.9	97.9	2.1% ↑	

▲ '20년 9월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8월 육류(93.2→92.4), 유제품(102.0→102.1), 곡물(98.7→99.0) 가격이 보정되어 8월 식량가격지수 조정(96.1→95.9)됨@FAO 자료 편집

육류 가격의 경우 8월(92.4포인트) 대비 0.9% 하락한 91.6포인트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4%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하락했고, 가금육은 상승했으며, 쇠고기는 안정세를 보였다.

돼지고기의 가격 하락은 독일 ASF 발생에 따른 중국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유럽 내 돼지고기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그림 8〉 독일을 비롯한 유럽지역 ASF 발생 상황



▲ 지난달 9월 독일(Deutschland)서 처음으로 발견된 ASF 멧돼지(파란점)가 이달 12월 기준 65건으로 늘었습니다@IFI 연구소

앞서 전달인 8월 돼지고기 가격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급 위축 속에 중국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9월 돼지고

기 가격은 전달 반짝 상승을 멈추고 하락한 셈이다.

양고기 가격도 하락하였는데, 최대 수출국인 호주의 공급량이 매년 하반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금육은 국제 수요가 많으나 브라질의 수출용 공급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였다. 쇠고기는 브라질산 가격 상승과 호주산 가격 하락으로 국제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곡물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8월에 이어 9월도 또다시 상승하였다. 유럽의 생산량 감소와 미국의 공급량 감소가 예상에 따른 것이다.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0년 이후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개)을 모니터링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하는데, 2002-2004년 평균을 '100'으로 기준한다.

(출처) 돼지와 사람, '독일 ASF 여파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 하락 전환', 2020년 10월 14일자 기사(<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8837>)

11. (2020년 10월 19일)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구매력 손실로 소비 감소, 품목별로는 식물성 오일, 축산물 수요 위축, 주식에 대한 수요 영향은 미미

OECD는 FAO(UN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향후 10년간의 중기 농업전망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2029 농업전망」은 코로나 19로 인해 조정된 2020-2021년 간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같은 기간 동안 농식품 분야의 단기 영향을 예측한 파트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품목별 전망 ■

□ 곡물: 제고 방출과 생산량 증대가 수요 성장세를 상회하여 실질가격 하락 전망 • 중국의 사료 수요 둔화, 1인당 곡물 소비량 정체 등으로 이전에 비해 수요의 성장세가 둔화 • 2029년까지 옥수수 생산은 193백만 톤, 밀 생산은 67만 톤, 쌀 생산은 67만 톤 각각 증가할 전망 • 밀 수출은 러시아, 옥수수 수출은 미국, 쌀 수출은 인도, 태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 육류: 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전 육류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육류 생산은 2029년까지 12% 증가 예상 •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의 소비 추세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단순 소비량 증가보다는 고품질 육류 소비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남 • 가축질병, 위생규제, 무역정책, 육류 소비의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이 향후 육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낙농품: 세계 유제품 생산은 다른 품목군에 비해 빠른 연 1.6%씩 증가,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선 유제품 소비가 늘 전망 • 유제품 생산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 • 소득 증가에 따라 인도, 아프리카 등의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 증가하고, 북미·유럽 지역에서는 버터·치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 버터와 SMP(Skim Milk Powder)의 실질 가격은 다른 품목군들과 달리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위기와 불확실성의 영향>

[코로나19 영향] 전례 없는 구매력 손실로 인해 농식품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되며,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심화, 또한 일시적으로 노동력

공급, 물류·운송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생산·유통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품목별로는 식물성 오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주식(쌀, 밀 등)에 대한 수요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1, 2020.10.19.

- 원문출처: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0-2029’,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2020.7.16.일

12. (2020년 10월 20일) 코로나 이후 세계 낙농 진로는? - 11월 4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IDF WDS(세계낙농정상회의)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IDF는 최근 남아공의 개최 포기로 벨기에에서 약식으로 개최키로 했던 2020 IDF WDS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이 계속됨에 따라,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회원국에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IDF WDS는 11월 2일 총회를 시작으로 3일부터 13일까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학술행사인 IDF 포럼과 낙농지도자포럼(Dairy Leaders Panel 2020)은 11월 3일 현지시각 개최된다.

우선 IDF 포럼(한국시간 11월 3일 20-21시)에서는 금년 총회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IDF 회장 주디스 브라이언스와 과학사업조정위원회(SPCC) 위원장, 사무총장 등이 나와 IDF 현황과 올해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개최되는 낙농지도자포럼(한국시간 11월 4일 00시-01:30분)에서는 IDF 회장과 중국 명뉴, 캐나다 사푸토와 노르웨이 티네 社の CEO가 출연해, ‘세계 낙농산업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코로나19부터 UN 식품시스템 총회까지’를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학술행사는 회원국 관계자는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업계관계자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코로나 이후 세계 낙농 진로는? - 11월 4일 IDF 리더스 포럼 열려’,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0일자

- 원문출처; 국제낙농연맹(IDF), 10월 15일자

13. (2020년 10월 22일) 코로나 시대 승자는 치킨 시장...美日서도 성장세 뚜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는 외식업계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치킨업체들은 배달 수요를 등에 업고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다음 달 12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치킨 시장이 커지고 있다.

1991년 설립한 교촌에프앤비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한다. 기존에 코스닥에 상장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페이퍼컴퍼니와 합병해 우회상장한 것과 달리 첫 정규상장이다. 교촌에프앤비는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이 2,15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8%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국내 매장을 1234개에서 1,500개로, 해외 매장을 37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간편가정식(HMR), 수제맥주 등 신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외식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가운데 노랑통닭은 성공적으로 매각이 완료됐다. 국내 사모펀드(PEF)인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는 노랑푸드 지분 100%를 공동 인수하는 작업을 16일 마무리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노랑통닭은 매출이 2017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502억 원으로 급증한 데다 가맹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페리카나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인수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단, MP그룹이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상장이 유지되는 조건하에 인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거래소는 늦어도 다음 달 결론을 낼 방침이다.

IB업계에서는 한국내 1인당 닭고기 소비량(18.7kg)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kg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치킨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본다. 외식업체를 보유한 한 PEF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양극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육류 소비에서도 아예 질 좋은 쇠고기를 먹거나 가성비가 좋은 닭고기를 찾는 트렌드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치킨이 주재료인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가 3,500억 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PEF에 팔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치킨 시장이 수혜를 보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닭날개 전문점인 윙스톱은 21일 주가가 119.07달러로 연초 대비 40.5%, 코로나19 저점(3월 18일) 대비 139.5% 올랐다. 배달,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고 치킨이 피자나 햄버거보다 건강한 식품으로 조명 받은 덕분이다. 한국내 PEF인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치킨 브랜드 본촌 역시 미국 내 매장을 현재 약 100개에서 5년 내 400개로 늘릴 계획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올해 튀김닭(치킨가라아게) 시장 규모가 2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동아일보, ‘코로나 시대 승자는 치킨 시장…美日서도 성장세 뚜렷’, 2020년 10월 22일자 기사

14. (2020년 10월 22일) 미국농무부, 세계 양돈시장, ASF 그늘 벗어날 것으로 전망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내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중국의 생산이 10% 가까이 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입도 다소 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세계 육류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올해 9천 787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 18년(1억 1천 294만 톤) 이후 2년 연속 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감소세를 끝내고 생산량이 1억 216만 톤으로 올해보다 4.4% 늘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3년만에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돼서이다. 농무부는 중국의 생산량이 ASF 여파로 18년 5천 400만 톤에서 올해 3천 800만 톤까지 감소하지만, 그동안 돼지 사육두수 회복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내년에는 4천 150만 톤으로 올해보다 9.2% 늘 것으로 예측했다.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ASF 피해가 컸던 베트남과 필리핀도 내년 생산이 다소 회복(전년비 4.9%, 5.9%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량 회복과 함께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무부는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경제 상황 개선과 외식 부문의 회복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멕시코,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은 19년 감소세(전년비 각각 4.6%, 2.5%, 17.9%↓)서 내년 증가세(1.4%, 3.6%, 7.9%↑)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지난 2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수입량은 올해 480만 톤에서 내년 450만 톤으로 6.3% 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생산물량 회복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전체 세계 수입물량은 내년 1천 31만 9천 톤으로 올해보다 0.4% 가량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국가별 내년 전망을 보면 생산량의 경우 EU는 2천 415만 톤, 브라질 427만 5천 톤, 러시아 360만 톤으로 올해보다 각각 0.6%, 3.6%, 2.3% 늘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출은 EU와 캐나다의 경우 올해까지는 중국의 수입 수요 호조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6%, 2% 각각 줄고, 미국도 일본, 멕시코 등에 수출이 늘지만, 대 중국 수출물량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양돈타임스, ‘세계 양돈시장, ASF 그늘 벗어나나’, 2020년 10월 22일 기사

15. (2020년 10월 23일) 코로나19 1차 확산세 완화 이후 중국 유제품 수요 회복되며 가격 회복에 영향 미쳐, GDT 유제품 시세 소폭 상승

지난 10월 20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3회 연속 올랐으나 상승폭은 0.4%로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버터, 체다치즈, 전지분유가 2주전인 10월 6일 대비 각각 3.3%, 3.0%, 0.3% 올랐고, 탈지분유는 0.2% 내렸다 전지분유는 2회 연

속 톤당 3천 달러(약 350만 원)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탈지분유 가격은 소폭 내리며 2회 연속 조정장을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생산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제품 가격이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1차 확산세 완화 이후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회복되며 가격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0월 9일자)은 버터, 전지와 탈지분유 모두 2주전 대비 각각 0.9%, 1%, 1.1% 내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GDT 유제품 시세 소폭 상승’,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3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0월 20일, USDA Dairy Market news, 10월 09일자

16. (2020년 10월 23일) 2020 세계 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가 세계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 별도로 다루

IDF가 ‘2020 세계낙농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를 10월 27일(한국 시간 21시-22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회원국에 알려졌다. 이 행사는 매년 IDF 세계낙농정상회의(WDS) 부대행사로 열려 WDS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석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국내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IDF의 주력 출판물인 ‘세계낙농동향 보고서’는 IDF가 전 세계 50여개국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낙농정책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더한 연차 보고서로, 원유생산 가공, 소비, 무역, 가격 등 낙농산업 전반의 통계자료와 함께 시장트렌드와 업계의 주목할 만한 성과 등을 소개한다. 특히 2020년판은 코로나19가 세계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다루고 있다.

한편 IDF는 글로벌 유업계 CEO들이 출연해 코로나19 부터 내년 말 개최되는 UN식품총회까지 세계 낙농산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낙농지도자포럼(한국시간 11월 4일 00시-01시 30분)도 개최한다. 이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2020 세계 낙농산업동향 보고서 론칭 행사 사상 최초 온라인 생중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3일자

- 원문출처; 국제낙농연맹(IDF) 10월 21일자